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 II. 収録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南北韓比較—經濟

# 南北韓 國民所得水準과 消費生活比較

研究執筆責任 李 滿 基

(略歷) 서울商大 經營科 (1957)  
 高等考試 行政科合格(1959)  
 서울大學院 (1960)  
 投資開發公社 副總裁(1969~1976)  
 金融人研修院 副院長(1976~現在)

刊行責任 李 浩 (調査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 目 次

序 論	3
第一章 福祉厚生政策의 基本方向	4
第二章 購買力과 生計費 水準	21
第三章 南北韓의 實質國民所得	42
結 言	70

## 序 論

南北韓의 國民所得과 消費生活을 比較하는 것은 다른 어느 部門보다도 어렵다. 北韓에 있어서는 階層別國民所得의 統計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특히 都市와 農村의 家口別 生産 및 消費活動에 대한 北韓資料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部門의 南北韓比較에 있어 直接的인 統計資料의 對比는 곤란하므로 斷片的으로나마 北韓의 當局者들이 言及한 內容을 기준으로 추적할 수 밖에 없다. 예를들면 1970年11月 第5次全黨大會에서 「勞動者와 農民의 生活水準의 差異, 都市와 農村의 生活條件의 差異를 말리 없애야 한다」는 發言을 통하여 現實적으로 그러한 階層別 生活水準 또는 生活條件의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듯이 北韓의 住民들의 生活狀態를 그와같은 公式的發言을 利用하여 探知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비하여 韓國의 國民所得과 消費生活에 관한 資料는 가능한 모든 資料를 利用하고, 또한 國際적으로 比較함으로써 對北韓比較의 한 基礎資料를 삼았다. 따라서 이 研究報告書는 자연히 韓國의 資料와 分析內容을 基準으로 하고 北韓의 內容을 添加하여 補充적으로 比較하는 立場을 취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끝으로 未研究의 內容은 우선 南北韓의 國民生活에 對한 政策的인 課題로써 福祉厚生政策의 基本方向을 비교 검토하고 國民生活의 比較基準으로써 購買力과 生計費를 비교검토하며 實質國民所得과 消費支出을 비교 검토하겠다.

## 第一章 福祉厚生政策의 基本方向

### 第1節 福祉厚生政策의 課題

人間의 福祉와 厚生을 증진시키는 것은 모든 經濟學者들의 관심사이며, 모든 國家의 政策目標가 되고 있다. 新古典學派의 大家이며 厚生經濟學을 저술한 피구(A.C.Pigou)는 1908年 劍橋大學에서 그의 스승 마샬(A.Marshall)로부터 인계받은 첫강의를 시작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나는 누구든지 에지워즈教授의 數學的 心理學이나 피셔博士의 物價와 利子에 관한 관심을 갖고 經濟學을 배우려는 사람은 마치 事業家가 되려고 자기의 將來의 事業에 대해 무엇인가 새로운 知識을 얻으려고 經濟學을 배우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보다도 만일 사람들이 런던의 貧民窟을 지나고 그들을 도우기 위하여 經濟學에 들어온다면 더욱 반가운 일이다」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經濟學者 피구의 말을 빌리면 學者가 되기 위해 經濟學을 배우거나 事業家가 되기 위해 經濟學을 배우는 것은 다같이 반가운 일이지만, 그보다도 貧困을 추방하기 위한 政策을 연구하기 위하여 經濟學을 배우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하였다.

貧困의 追放을 위한 政策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經濟開發을 추진하고 經濟를 成長시키는 成長政策이며, 또 하나는 貧富의 格差를 좁히기 위해 富의 分配을 조정하는 分配政策이다. 한 나라와 社會안에서의 貧富의 格差를 생각할 때에는

分配의 問題가 대단히 중요한것 같으나, 世界各國의 國民經濟 또는 國家의 貧富의 格差를 생각할 때에는 우선 富의 增進을 위한 經濟成長政策이 시급한 것 같기도 하다.

예를들면 우리나라의 1人當國民總生産은 1976년에 690 달러에 이르고 있어 과거 1960년의 83 달러에 비하면 그동안 많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현재 잘차는 나라들 특히 OECD加盟國들의 1人當 平均所得은 5,000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所得은 아직도 현저히 낮다.

世界各國을 經濟水準으로 생각하면 모든 나라는 貧困에서 出發하여 富裕를 향해 競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과거에는 帝國主義國家와 殖民地, 2次大戰後에는 先進國과 後進國, 오늘날에는 既開發國과 開發途上國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최근 開發을 못한 나라들 중에는 開發을 성공하고 있는 開發途上國과 그렇지 못한 絶對的貧困國家로 다시 구분되고 있다. 即 開發國의 그룹인 OECD 國家들은 現在 5,000 달러의 1人當所得水準임에 비하여 開發途上國은 970 달러 絶對的貧困國은 200 달러未滿이다.

우리는 이와같은 世界經濟는 앞으로 開發途上國은 富國과의 格差가 점차 감소되나 絶對的貧困은 富國과의 格差가 점점 擴大될 수 밖에 없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그 이유는 貧困은 所得水準이 絶對的인 低水準인데다가 成長速度도 느리기 때문에 貧困을 脫皮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 달러未滿의 國家의 1人當所得이 불과 1~2% 증가되어도 年間 2~4 달러밖에 증가되지 못하는데 반해

5,000 달러의 國家가 만일 1~2% 成長한다면 50~100 달러가 증가될 것이며 실제로 있어서는 OECD 國家의 成長率은 4~5%가 되므로 1년에 200 달러以上 成長된다. 比率로는 2배남짓하나 金額으로는 100배가 넘는 것이다.

開發途上國은 年間 7~10%의 高度成長을 하기 때문에 점차로 先進國을 추격할 수 있으며, 오늘날 富國에 속하는 日本의 경우 과거 1960년에는 1人當 GNP가 462 달러이었으나 70년에는 4,407 달러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도 1976년에 690 달러에 이르렀고 앞으로 5년후에는 1,500 달러, 같은 속도라면 10년후에는 3,000 달러의 水準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貧困의 追放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高度成長政策이다.

그러나 마르크스主義者들은 經濟의 成長보다도 分配의 問題에 더욱 力點을 두고 있을뿐 아니라 資本主義體制에 있어서의 經濟成長은 오히려 貧者들을 더욱 貧困케 하고 富者들의 富만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資本主義는 偉大한 生産力을 發揮하였으나 그 内部에 存在하는 矛盾때문에 一般大衆은 貧困과 飢饉에 허덕이며 顛倒된 社會를 形成한다는 것이다. 顛倒된 社會란 본래 勞動者가 支配해야 할 社會에 資本家가 支配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와같은 顛倒된 社會에서 사람들은 自己疎外를 당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들은 이를 「人間의 自己疎外化」(Selbstentfremdung des Menschen)라고 불렀는데 이는 人間으로 하여금 그들의 人格과 生活條件이 分離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自己疎外를

당한 貧困한 勞動者는 勞動이 人格의 自己表現이 아니라 生存을 위한 不快한 作業이며, 그나마 作業의 機會를 상실한 失業者는 生存의 危脅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勞動者는 國籍이 없는 國民과 같이 「祖國안의 異國」에서 살지 않으면 안되며, 이러한 矛盾된 社會를 革命에 의하여 止揚하는 것이 「革命的 프롤레타리아의 共同社會」(die Gemeinschaft der revolutionären proletarier)의 實現이라고 한다.<sup>註1)</sup>

資本家가 없는 社會인 社會主義國家에서는 모든 生産工場은 國有化되고 農業도 集團化되고 生産과 分配과 消費에 이르는 모든 經濟行動이 中央計劃當局者들의 計劃과 命令에 依存된다. 그렇다면 生産工場의 長은 누구이고 集團農場의 管理者는 누구이며, 더욱이 中央計劃當局者는 누구인가. 生産工場의 經營과 管理는 中央黨의 計劃과 지시에 따라야 하며 모든 國民은 消費財의 選擇도 許容되지 않고 中央計劃當局者의 命令에 支配되어야 하므로 모든 國民의 自己疏外는 더욱 強力하게 짊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共產主義國家의 現實이다.

計劃과 命令에 依存되는 社會이기 때문에 共產主義國家들도 開發途上期에 있어서는 高度成長을 실현시킬 수 있다. 소련은 革命後의 成長過程에서 年 8~12%의 高度成長을 실현시켰다. 그러나 勞動者 農民을 위한다는 그들의 급속한 經濟發展은 오히려 勞動者와 農民

---

註 1) 崔文煥, 마르크스主義의 民族理論批判, 崔文煥全集, 下.



의 착취를 土台로 이룩한 것이다. 그들의 勞動者와 農民의 착취는 강력한 工業化와 農業의 集團化에 의하여 행해졌으며 이는 共產主義化시키려는 野望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計劃經濟는 重工業에 중점을 두면서 한층 封鎖的인 自給自足的經濟, 즉 아우타르키體制를 강화하였다. 오늘의 北韓의 體制도 바로 이와같은 것이다. 그들은 오직 武力變化의 野欲에 불타있는 獨裁者의 指令에 따라 모든國民은 消費財選擇의 機會조차 없는 철저한 自己疎外속에서 獨裁者의 奴隸로 전락되고만 것이다. 貧困의 追放을 위한 두개의 課題, 즉 成長과 分配의 問題는 資本主義와 共產主義의 어느 體制에 關聯된 問題가 아니다. 그것은 資本主義이던 共產主義이던 指導者 또는 政策當局이 얼마나 성실하게 國民의 厚生과 社會福祉의 增進을 위하여 成長政策과 分配政策을 조화있게 추구하느냐에 위존된다.

共產主義는 資本主義보다 優位에 있는 體制가 아니라 資本主義의 過渡期에 있는 後進國에서 발생될 수 있는 反資本主義體制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은 現在 資本主義가 高度로 發展된 先進國에서는 共產化의 위협이 전혀 없고 東南亞나 아프리카와 같은 後進된 地域에서 共產化의 위협이 강하다는 것이 現實적으로 證明해 주고 있다. 資本主義國家에 있어서도 後進國은 貧困하다. 이를 後進國은 資本主義가 아니며 따라서 이들은 엄격히 말하면 資本主義國家도 社會主義國家도 아닌 原始的 中央集權國家에 불과하다.

이들이 貧困을 극복하고 資本主義國家로 발전되기 위하여는 무엇

보다도 生産力을 높여야하며 生産力을 높이려면 資本蓄積이 필요  
하다. 그러나 초기의 資本蓄積過程에 있어서는 國民의 消費節約이  
강조되고 分配의 不均等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같은 消費節約의 강  
요와 分配의 不均等은 國民의 不滿을 초래하게 되고 政治的不安을  
조성하기 쉽다.

그러므로 모든 後進國은 두개의 對立된 課題, 즉 生産力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資本蓄積과 所得分配의 均衡을 동시에 급속히 해결  
해야 한다. 이것은 결국 貧困의 해결을 위한 두 과제인 成長과  
分配의 問題인 것이다. 이러한 要請을 가장 적절히 조화시키고 國  
民經濟를 高度成長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강력한 經濟計劃이 필요하  
며 강력한 政權이 필요하다. 더우기 所得分配의 不均衡은 여러가지  
의 社會的不条理의 温床이 되고 자칫하면 權力과 致富의 腐敗를  
통하여 國民大衆의 반발을 일으키기 쉽다. 그러므로 後進國에 있어  
서는 成長과 分配 以外에 不正腐敗의 除去라는 또하나의 과제가  
따르며 이것이 실패될때 共產主義의 侵略을 받는다. 그러므로 로스  
투우(W.W. Rostow)는 共產主義를 가르켜 過渡期의 疾病(a  
disease of transition)이라고 불렀다. 西歐社會에 비해 後進  
國이었던 帝政러시아가 부패했기 때문에 共產化했고 國府의 腐敗가  
中國의 共產化를 초래했으며 최근에도 수많은 美國의 원조와 軍事  
的介入에도 불구하고 越南政權의 腐敗와 過渡期的 試練에의 失敗가  
共產化의 要因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福祉厚生政策의 課題를 經濟成長과 分配의 조화

있는 政策遂行을 얼마나 성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싶다. 朴大統領의 77年度 年頭記者會見에서 지적한것 처럼 社会福祉政策은 자칫 잘못하면 經濟成長을 둔화 또는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伸重을 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4차계획을 수행하면서 社会開發을 착수함에 있어서도 持續的인 經濟成長을 추구하면서 이를 적극 추진하려 하는 것이다 註2)

## 第2節 福祉厚生에 대한 南北韓의 政 策 方 向

大韓民國의 至上目標은 國民厚生을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71年 光復節때 大統領께서는 「우리는 이  
 以上더 무고한 北韓住民을 희생시켜가면서 戰爭準備에 狂奔하지 말  
 고 어느 體制가 國民들을 더 잘 살 수 있게 하는가를 立証  
 하기 위하여 生産과 建設과 創造의 競爭<sup>註3)</sup>을 하자고 하였다.

1962年부터 經濟開發計劃을 착수한 이래 政府와 國民은 다같이  
 모든 어려운 与件속에서도 잘 살기 위하여 努力했고 그 결과는  
 부진 經濟成長을 기록했다. 「電力을 개발하고 道路를 닦고 工場  
 을 세워 工業化를 추진해 왔으며 새마을 運動을 일으켜 農漁民

註2) 1977年 大統領 年頭記者會見

註3) 1970年 大統領 光復節 演說

의 生活環境을 개선하고 國民의 所得을 크게 向上시켰다.  
특히 經濟開發을 추진하는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얻고 또 배웠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도 힘을 합하여 노력만하면 先進國과 같이 잘 살수 있다는 理念과 내일의 希望을 얻은 것이다」라고 「韓國經濟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책자에서는 그동안의 開發過程을 서술하고 있다. 좁은 國土, 分斷된 國土와 動亂을 겪고 潛在的인 戰爭의 危險을 배제할 수 없는 體制狀態에서 크고 작을 수 많은 北韓의 挑發을 받으면서 一面 國防과 一面 建設에 치중하면서도 오직 國民厚生과 福祉向上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經濟開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投資資金의 상당한 部分은 海外로부터의 資本導入에 의존하였다. 이것은 언젠가는 償還해야 하는 國民負擔이 되기도 하나, 한편 開發初期에 필요한 資本動員을 처음부터 國民에게 負擔시킴으로써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극도의 消費抑制와 勞動者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開發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第1次計劃期間中 總投資의 52%를 外資로 충당했으며 政府는 이와같은 國際協力과 함께 貿易面에서 적극적으로 開放體制에 옮겨 輸出伸張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輸出은 年平均 43%라는 놀라운 伸張率을 기록하면서 全體의 經濟成長을 主導하였다. 그리하여 經濟規模가 擴大되면서 投資所要가 더욱 급속히 늘어났으나 外資의 依存率은 2次計劃때는 39% 3次計劃때는 29%로 점차 감소시켰고 4次計劃때에는 12%로 줄이게 되며 마침내 4次計劃이 끝나기 전에 投資資金의 海外依存을 완전히 止揚

하고 國民貯蓄으로 全額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輸出增大에 의하여 外債의 必要額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며 그동안 61년에는 年間 4千8百萬달러에 불과한 輸出実績이 76년에는 80億달러로 무려 200 배에 이르렀고 앞으로 4次計劃이 끝나는 81년에는 200억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共產主義國家들은 아우탈키 (Autarkie) 經濟體制 즉 自給自足の 經濟體制를 강력히 추구하면서 國際協力을 外面하고 있다. 만일 韓國經濟가 이들과처럼 經濟協力を 배제하고 開放體制를 택하지 않았더라면 現在와 같은 成長은 不可避하였을 것이며, 成長을 위한 國民들의 희생은 더욱 컸어야만 했을 것이다 北韓에 있어서는 1966年 勞動黨代表會議에서 「社會主義經濟建設에서 가장 중요한 問題는 自力更生의 豫則에서 自主的民主經濟를 建設하는 것이 黨의 一貫된 路線」이라고 선언함으로써 封鎖體制를 지향하였다 이것은 스탈린式의 一國家社會主義體制를 모방한 것이다. 蘇聯은 共產主義革命이후 自國中心의 經濟體制를 강화하여 自給自足の 態勢를 갖추었고 2次大戰前에 이미 重工業에 중점을 둔 自給自足經濟體制를 確立하였다. 당시 蘇聯은 工業生産이 世界總生産의 4%에서 10%로 上昇되었으나 世界貿易에 차지하는 비중은 3~4%에서 1%를 오히려 감축시킴으로써 아우탈키 經濟體制를 실증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위성국가에 대해서 蘇聯은 그들 國家中心의 아우탈키體制를 허용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蘇聯經濟에 依存하도록 統制해왔던 것이다. 蘇聯은 衛星國에 대하여 輸出入品目的 價格을 統制하였을뿐 아

나라 蘇聯의 5개년 計劃에 따라 輸出·方向이 결정되고 이것이 衛星國의 貿易量을 결정하게 했던 것이다.

그 결과 2次大戦前이었던 1937年 東歐圈의 蘇聯과의 貿易은 約 1%이고 東歐圈상호간의 貿易은 12%이었으나 이들 東歐圈이 衛星國으로 편입된 後로는 그들 貿易의 65%가 共產圈內에서 행해지고 특히 蘇聯과는 31%에 이르도록 높게 함으로써 衛星國經濟의 蘇聯經濟에의 依存性을 높였던 것이다. 註4)

스탈린이 제창한 아우탈키體制는 各國의 自給自足이 아니라 蘇聯의 自給自足에 불과하며 그것은 衛星國을 蘇聯에 예속시킴으로써 강화된 것이다. 北韓經濟가 1966年에 「自力更生의 原則」을 제창한 것은 그동안의 蘇聯經濟에의 예속을 탈피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며, 사실상 이것은 당시 즉 1960年代의 中半期부터 蘇聯을 中心으로 한 共產先進國으로부터의 援助가 中斷되었기 때문에 不可避했던 것이다. 援助의 中斷과 때를 같이하여 隸屬의 中斷을 부르짖고 自立更生의 原則을 제창한 北韓經濟는 1970年에 이르기까지 330百萬 달러의 輸出規模와 379百萬달러의 輸入規模로써 도합 7억달러의 貿易規模에 불과함으로써 당시 27억달러의 貿易規模에 도달한 韓國에 비하여 4분의1에 불과했으며 이같은 갭은 70年代以後 급격히 증대될 수밖에 없었다

---

註4) 崔文煥, 前掲文獻

76년에 韓國은 輸出 80억달러 輸入 88억달러로써 貿易規模가 168억달러로 擴大되고 있는데 비하여 北韓은 輸出 8억달러 輸入 12억달러로서 20억달러의 貿易規模에 불과하여 韓國의 6分の1에 未達되고 있다. 특히 北韓은 70年代에 들어 계속 貿易赤字가 擴大됨으로써 그들의 아우탈키體制가 危殆을 받게 되었고, 貿易赤字로 생긴 外債을 償還하지 못하여 심각한 困境에 빠지게 되었다.

둘째로 經濟開發政策에 있어서의 國民厚生 및 福祉政策의 方向을 비교해보겠다. 이미 앞에서도 살폈지만 經濟開發過程에서 가장 큰 課題는 成長과 配分을 어떻게 調和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韓國에 있어서는 開發初期에 있어서 成長意欲을 증진시키고 成長効果를 높이기 위하여 分配의 문제는 부득이 뒤로 미루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後進國이 開發初期부터 成長과 安定과 分配의 問題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은 곤란하며, 따라서 韓國의 開發初期에 있어서도 先成長後分配의 開發方法을 택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後進國의 開發問題에 관심을 갖는 모든 學者들의 一般的인 見解와도 같은 것이다. 예를들면 싱거(W.H.Singer)는 「多角的인 開發의 利益은 經濟學者들의 관심사이지만, 정말로 低開發國의 現實을 내다 본다면 그들은 우울증을 느끼고 말것이다. 왜냐하면 다각적인 同時開發을 하기에는 資源이 너무나 不足하기 때문이다」(註5) 라고 하였던 것이다. 1人當所得이 200 달러 内外의 貧國이 分配를 할 富가 어디있으며,

---

(註5) H.W.Singer, Economic Progres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PP7-8.

同時에 추구하기에도 너무 벅찬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미 朴大統領께서 分配問題를 요구하는 在野勢力에 대하여 「果實익기도 전에 따 먹을 수 없지 않느냐」고 비유하면서 많은 果實익이 생길때까지 成長政策을 추구할 必要가 있음을 밝힌 것과 같다.

더우기 經濟開發과 社會開發의 과제는 마치 하나의 投資가 他産業에 대해서도 영향을 줌으로써 關聯效果(linkage effect)가 있듯이, 經濟開發이 社會開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部門을 완전히 포기하는 代替選擇(substitution choice)이 아니고 단순히 한 部門을 延期시키는 延期選擇(Postponement Choice)인 것이다. 韓國에 있어서는 3次計劃에 이르기까지 經濟開發에 주력하였으나 4次計劃때부터는 社會開發에 착수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經濟開發過程에서 발생한 社會的不平等을 해소시키려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經濟開發過程에 있어서도 共產國家와 같이 重工業優先政策을 취하지 않고 먼저 消費財産業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國民福祉의 向上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北韓共產主義에 있어 單需産業爲主의 重工業優先政策과는 對照的이다. 그들은 1961년부터 70년대까지 重工業과 絲工業의 비중이 8對2로써 극심한 不均衡成長을 추구하였고 輕工業이 없는 아우탈기體制에 의하여 住民에게는 극도의 耐乏生活를 강요하



고 있는 것이다.

共産主義社會에 있어서 그들이 말하는 剩餘生産物, 또는 社會的生産物의 剩餘價值가 勞動者의 福祉向上을 위하여 使用되지 않고 軍力強化와 獨裁政權의 유지에 使用되었고 統治階級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탕진되고 있다. 蘇聯의 경우 그곳에서 脱出한 수잔느·나방의 「共産主義50年現実」에 의하면 勞動者1人당 生産價值가 月 750 루블인데 勞動者에게 支給되는 金額은 125 루블에 불과하여 勞動者가 獲得당하는 비율은 600 %나 됨으로써 카르크스가 資本主義社會에서 勞動力擄取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보다 2배 이상이나 擄取率이 높으며, 北韓에 있어서는 勞動力擄取率이 이보다도 더욱 높은 것이다. 1962年 金日成은 內閣秘密會議에서 「北韓勞動者 1名의 年間 生産額은 3千원이며 勞動者에게 支給되는 賃金은 年間 480원 내지 500원이라고」 지적하였으므로 600 ~ 625 %의 높은 擄取率을 自認한 것이며 최근에는 이보다도 더욱 현저하게 擄取率이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와같은 強力한 勞動力擄取에서 생긴 剩餘生産物의 대부분은 軍力強化와 支配層의 호화로운 생활에 충당하게 되는데 최근 中共에서 속칭된 工體도 桃色映画의 구입에 年間 35萬달러를 使用하였음이 밝혀졌으며 金日成은 1百萬坪의 蠶池에 크레mlin宮보다도 더욱 화려한 超豪華版의 宮殿을 짓고 있음이 밝혀진 것과 같다.

세계로 社會開發 및 分配政策은 經濟가 開發된 후의 課題로서 政策當局이 얼마나 誠實하게 이를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 그 성과

는 추정된다. 韓國開發院 ( KDI )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板子집에 살고 있는 庶民들에게 「가장 긴급한 요망사항이 무엇인가」라는 質問에 대한 答弁에 있어 住宅保有는 상당히 順位가 낮고 第1順位는 安定된 職場이 必要하다는 答弁이었다고 한다. 安定된 職場보다 좋은 職業의 선택은 가장 기본적인 요구인 것이다. 國民들에게 보다 安定되고 좋은 職業을 제공하자면 그만큼 經濟規模가 커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社會開發의 第1順位인 雇傭問題는 經濟成長을 必要로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現在 就業人口의 增加規模는 年間 約 40 万名이나 되며 이들을 雇傭시키기 위해서는 經濟成長率이 年間 7%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도 76年 11월에 있어 失業率은 8.1%로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6.5% ~ 7.7%에 해당되는 男女成人의 增加에 기인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失業率의 증가가 景氣의 不況인지 아닌지는 보는 사람의 見解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다. 註6) 北韓에 있어서는 勞動力人口가 不足하여 女性까지도 勞動力動員을 위해 이른바 「女性을 家庭으로부터 解放시킨다」고 하였으므로 失業問題는 없다고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아오지炭礦에서 강제노동을 당하는 사람들이나 그밖에 平均적으로 800%의 勞動力榨取를 당하고 있는 그들의 職場이 과연 安定된 職場인지 또는 마르크스가 自己疎外를 당한 勞動者의 作業이, 不快한 作業이라고 말했던 바, 바로 그 不

註6) Business Week, McGraw-Hill Publication, Dec. 20, 1976

快한 作業인지는 再言의 必要가 없을 것 같다.

板子집사람들의 応答 가운데 第2順位는 子女들의 教育問題이었다. 韓國의 教育水準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높은 반면에 그만큼 教育費의 支出이 家計에 있어 어려운 課題라고 생각할 수 있다. 韓國에는 과거부터 教育과 文化水準이 높고 文盲者가 거의 없는 것이 자랑이며 父母들의 子女教育熱이 대단히 높은 것이다. 더우기 60年代以後 教育部門의 發展相은 刮目할만하여 60년에 4,496개이던 國民學校가 74년에는 6,315개로 40.5%가 늘었으며 中學校는 1,051개에서 1,935개로 83.8%, 高等學校는 658개에서 1,089개로 85.5%, 專門學校와 大學등의 高等教育機關은 85개에서 202개로 137.6%가 늘었고, 公民學校와 이에 準하는 其他의 學校는 481개에서 561개로 16.6%가 증가되었다. 그리하여 全體의 學校는 6,773개에서 10,102개로 49.2%가 늘어났으며 이는 같은 기간의 人口增加率 33.2%보다 월등히 높다. 뿐만아니라 60년대 이후 學校教育以外에도 職場教育, 成人教育, 새마을教育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部門의 教育이 質的量的으로 현저하게 發展되고 있다. 註7)

아제 4次計劃에 있어서 社會開發의 착수와 함께 教育部門의 投資는 한층 증대될 것이며 특히 低所得層의 學費負擔을 경감시키기 위한 각종 奨學制度와 實業 및 技術教育의 投資가 현저히 늘어날 것이다.

註7) 韓國經濟의 어제와 오늘, 大統領秘書室, 1975.

北韓에 있어서는 學校施設은 ① 國家負擔 ② 國家와 協同團體의 共同負擔, ③ 協同農場과 企業이 負擔하는 3 종류가 있으며 一般敎育過程에 있어서는 人民學校가 4年, 高等中學校 6年, 大學 4~5年으로 실질적으로 韓國보다 1~2年の 年限이 짧다. 學校數는 73年現在 人民學校 4,642, 中學校 3,353, 高等中學校 2,234, 大學 149개와 이밖에 高等技術學校 388개를 합하면 10,766개로써 韓國보다 數字上으로 많으나 이는 學校의 單位規模가 적기 때문이며, 學生數를 比較하면 韓國보다 월등히 적다. 韓國에 있어서는 學生數가 國民學校 5,619千名, 中學校 1,930千名, 高等學校 981千名인데 比하면 北韓은 人民學校 1,651千名, 中學校 1,431千名, 高等中學校 481千名에 불과하다. 특히 北韓의 경우 中學校와 人民學校의 學生數가 비슷하여 中學校까지는, 무조건 進學되는 것 같으나 人民學校가 4年, 中學校가 3年이므로 韓國의 國民學校 6年과 別 差異가 없다.

北韓에 있어서의 敎育目的은 「새로운 型의 人間을 創造」하는데 두고 있으며, 이것은 唯物史觀에 입각하여 黨을 위한 個人의 犧牲을 강요하는 人間型을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는 全體를 위하여」라는 그들의 口號와 「敎育은 이데오로기敎育과 政治가 不可分的으로 統合」되어야 한다는 레닌의 思想에 입각하여 黨을 위하여 犧牲을 강요당하는 人間像을 敎育理念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는 그들의 思想敎育 또는 敎育理念을 言及하기 보다 敎育에 대한 그들의 投資面을 考察하는데 그치 겠다. 1972年7월12일자 의 노동신문사설

에서 校具, 備品을 製재에 生産 供給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設備의 60%가 學生・敎員이 제작한 担憑한 製品에 依存하고 있으며 더욱이 주목할만한 것은 學生들의 義務勞動制인 것이다. 「學生社會義務勞動制」는 1959年 3月 2日 「內閣決定」第18号에 의하여 설정 公布된 후 學生들의 勞動力을 動員하고 있다. 특히 一般勞動者들 고용할 경우 月平均 112.5원 의 費用이 賃金과 食糧配給形態로 支給되는데 비하여 學生에 대해서는 公納金, 장학금, 敎材代를 합하여 約30원으로써 나머지 82원을 一般勞動者보다 더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學生들은 이와같은 勞動力動員外에도 1948年 2月 18日부터 실시된 軍事訓練을 위하여 最低 240時間을 실시하고 卒業時에는 이에 追加해서 40日間의 野營訓練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敎育의 상당 부분이 思想敎育, 勞動力提供, 軍事訓練에 제공되므로 이와같은 敎育을 위한 投資를 敎育投資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 의문된다.

## 第2章 購買力과 生計費水準

### 第1節 家計所得과 生活水準

1975年度 1人當 GNP는 韓國이 532 달러, 北韓은 342 달러로써 190 달러의 격차가 있다. 北韓의 1人當 消費支出의 水準을 추계하기 위하여 1人當 GNP에서 1人當 投資額과 1人當 國防費를 공제한 것을 1人當 消費支出로 보고 南北韓을 비교해 보았다. 韓國의 投資率은 26.1%이므로 1人當 投資額은 138.8 달러이며, 北韓은 投資率이 34.5%이므로 1人當 投資額은 342 달러의 34.5%인 118 달러이다. 한편 國防費는 韓國이 30억 달러 北韓이 79억 달러로써 南北韓의 人口로 나누면 韓國은 1人當 國防費가 8.7 달러 北韓은 50.2 달러이다. 따라서 1人當 GNP에서 이들을 제한 1人當 消費는 韓國이 384.5 달러, 北韓이 173.9 달러이므로 210.6 달러의 격차가 있으며 韓國의 1人當 消費水準은 北韓의 2.2배이다. 註8) 이와같은 推計를 韓國의 國民所得計定과 비교해 보면 1975年의 民間消費支出 6兆 4,242 억원을 換率 484원으로 나누면 美貨로 132.7억 달러이며 人口 34,681千名으로 나누면 1人當 消費支出額이 383 달러로써 큰 차이가 없다. 註9)

다음에는 共產主義者들이 가장 力點을 두고 있는 所得의 分配에

註8) 南北韓經濟體制 比較研究

註9) 1975年 國民總生産, 한국은행, 통계월보, 1976.9.

대해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그동안 分配보다도 成長에 더욱 힘  
 을 기울여 온것이 사실이나, 그러면서도 分配에 있어 外國보다 不  
 平等度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表1>은 1971年의  
 都市와 農村 및 全國家計의 10分位分布(decile distribution  
 of income)를 外國의 것과 비교한 것이다. 이 表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全國家計所得의 分布는 美國, 日本 및 臺灣과 비슷하고  
 다른 東南亞諸國, 즉 필리핀, 태국, 말라야, 실론등의 所得分布보다는  
 훨씬 均등하다. 우리나라의 全國的인 10分位不均等 指數가 0.27  
 로써 美國, 日本, 臺灣등의 0.25 ~ 0.28 과 비슷하고 필리핀, 태국,  
 실론의 0.37 ~ 0.42 보다 훨씬 낮다.

우리나라의 家計所得分布가 비교적 均등한 것은 統計上의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도 실질적으로 均등할만한 이유가 있다. 統計上의 문  
 제는 高所得層의 누락을 들 수 있는데 이는 東南亞國家에서도 마  
 찬가지일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1971年의 家計調査와  
 國民所得推計上의 家計所得을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으므로 家計  
 調査는 비교적 精確한 것이다. 즉, 71年의 都市家計所得을 平均  
 479,700 원, 農村家計는 356,400 원인데 都市家口가 3,465千戶,  
 農村家口가 2,482千戶이므로 이를 곱한 都市家計總所得은 1兆6,522  
 억원, 農村總所得은 8,846 억원으로 都合 2兆5,468 억원이 되는데,  
 이는 國民所得推計上의 總家計所得 2兆6,154 억원의 97.4%로써  
 거의 비슷하다. (註10)

註10) 金央錫, 韓國家計의 貯蓄狀態, 韓國開發院, 1975.P.35

〈表1〉 10分位 階層別 家計所得分布

年 度	韓 国			미국	日本	臺灣	필리핀	태국	말라야	실론
	都市	農村	全 国							
年 度	71	71	71	59	63	64	65	62	57~8	63
1	3.4	3.1	2.9	1.3	3.0	3.0	1.1	2.8	2.6	1.5
2	4.9	4.7	4.7	3.3	4.7	4.8	2.9	2.9	3.9	3.0
3	5.8	5.7	5.6	5.1	5.7	5.7	3.0	3.1	6.1	4.0
4	6.7	6.7	6.6	6.7	7.3	6.9	4.7	4.1	5.1	5.2
5	7.6	7.8	7.7	7.9	7.9	7.6	5.8	5.1	7.2	6.3
6	8.5	9.1	8.1	8.1	9.0	8.9	6.9	6.8	8.5	7.5
7	9.4	10.8	10.2	11.1	10.4	9.8	9.0	8.2	10.3	9.0
8	11.7	13.1	12.0	12.4	12.0	13.2	11.6	9.3	12.4	11.2
9	14.2	16.9	15.7	15.2	16.0	13.8	15.0	14.7	16.1	15.5
10	28.7	22.2	26.5	27.8	24.0	26.3	40.0	43.0	27.8	36.8
合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分位 均等指數	0.27	0.26	0.27	0.28	0.25	0.26	0.41	0.42	0.29	0.37

자료 : H.T.Oshima, "Income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MER, 1970, 韓國의 것은 KDI



우리나라의 所得分布가 均등한 이유는 經濟開發이 시작되기 전에는 個人資産이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均등했을 것이며, 그후 經濟開發이 시작되어 民間企業의 資本蓄積이 촉진되었으며 一部 大企業家의 所得은 中小企業者나 勤勞者의 所得보다 월등히 커지고 不均等化되었고, 심지어 一部 企業人の 豪華住宅등이 문제시되고 있으나 그러한 企業人の 數가 많지 않기 때문에 全體의 所得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것이다. 사실상 豪華生活의 문제도 東南亞의 경우보다는 훨씬 未及된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이러한 一部 沒知覺한 企業主의 豪華生活를 극히 억제하고, 企業의 社會的 責任을 高潮하며 企業公辦政策에 의하여 企業所負擔을 널리 分散시키고 있으므로 앞으로 經濟發展過程에서의 不均等度는 더욱 적어질 것이다.

한편 韓國의 家計所得을 都市家計와 農村家計를 비교해 보면 農村家計가 약간 더 均等하다. 특히 農村에서는 새마을運動등에 의하여 下位層의 所得이 都市보다 增大되고 있는 반면에 上位層의 所得增加는 土地所有의 上限과 農村所得의 上昇限界注으로 인하여 제한받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所得分布의 문제는 北韓에서는 생각할 수 없다. 職業選擇 및 消費財의 選擇에 대한 個人의 意思가 적용될 수 없는 集産主義적이고 集團적인 生活樣式을 갖는 社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社會에서는 根本적으로 그 集産體制와 集團生活이 均等한 것인가 어떤 階層을 이루고 있는가에 依存되며 더우기 한

集團속의 個人이 他集團속의 個人과 같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하면 個人을 위한 集團이나, 全體를 위한 個人이나에 의존될 수밖에 없다.

본래 마르크스의 理論은 多數者의 支配이지 少數者의 支配가 아닌 것임에도 不拘하고 北韓共產主義에서는 黨高位幹部로 구성된 少數者의 支配는 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金日成의 1人支配體制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北韓共產主義는 엄격히 따질 때 마르크스主義가 아닌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장한 革命理論은 少數의 集團이 수행하는 政變이 아니고 資本主義에 있어서의 資本集團과 貧困의 社會化등의 矛盾을 止揚하기 위하여 프롤레타리아階級이 支配하는 社會를 만드는데 있다. 그것은 「圧倒的多數者를 위한 自王的인 運動」이며, 勞働者階級에 의한 國家權力의 掌握이 社會主義國家의 特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共產集團은 「하나의 全體를 위하여」라는 口호에 따라 個人의 犧牲을 강요하면서 全體대신 金日成의 唯一體制가 支配者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全體를 위한 個人이라면 全體속에 包含된 個人을 위한 個人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全體속에 포함되지 않는 金日成 個人을 위한 全體民의 犧牲이 强요되고 있는 顛倒된 社會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北韓住民의 消費水準을 1人當消費水準이 韓國의 2분의 1도 못된다는 敎學的인 推計에서도 알 수 있으나, 그보다 기본

적인 것은 食糧의 不足, 消費財의 不足에서 오는 궁핍한 生活事情  
이며 이는 數学化할 수 없다. 그것은 첫째로 所得水準과 消費支  
出水準을 面裕으로 환산하여 集計할 수 없기 때문이다. 北韓에  
있어서는 所得과 消費의 均衡 또는 消費支出과 資金과의 均衡의  
문제보다도 근본적으로 物量面에서의 生活手段이 궁핍한 것이 문제  
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1家口의 所得水準이 月 100 원이고 실제로  
支出한 金額이 100 원이라고 할 때 資金과 消費는 外見上 均衡되  
고 있으나 문제는 支出한 金額으로 얻을 수 있는 物資의 配給水  
準이 生存에 不足함이 없느냐 하는 점이다. 韓國의 경우 物資의  
不足은 面裕騰貴로 나타나며 資金이 이를 따르지 못하면 家計支出  
의 赤字가 발생되므로 金額基準으로 生活狀態가 集計될 수 있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는 物資가 不足해도 面裕은 不變하므로 金額基  
準으로 그 不足分이 集計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北韓의 경우 食糧의 1日配給量은 一般勞動者와 事務員이  
600 g, 重勞動者가 700 ~ 750 g 이며, 그들의 主食인 쌀과 옥수수  
의 比率이 平壤에서는 5對5, 一般的으로는 3對7 내지는 2對8  
인데, 이러한 量으로는 세끼의 밥을 지어 먹기에도 不足한 것이다.

朴大統領께서 77年度 年頭記者會見에서 밝힌 것처럼 최근의 外  
信報道나 歸順者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北韓의 食糧事情은 매우  
긴박한 것 같다. 이것은 그동안의 1日配給量의 기준에 훨씬 未  
達되는 食糧配給으로 「펠라그라」라는 栄養失調病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76年度の 農事가 가뭄으로 凶作이었으며, 75年에도 「알곡 7.7백만톤」을 생산했다고 宣傳하고 있지만 그들의 알곡은 粗穀이므로 이들 精穀으로 환산하면 6백만톤에 불과한 것으로 西方側 農業者들은 分析하고 있다.

현재 北韓의 糧穀事情은 매년 20萬噸이상의 不足현상이 累積되고 있으며 70年代初까지는 不足한 食糧을 外國에서 導入하였으나, 최근에는 外貨事情의 惡化로 食糧導入을 못하기 때문에 住民들의 生活가 形容할 수 없을만큼 飢饉한 것이다. 옥수수를 主食으로 할 수 밖에 없는 北韓住民들은 그것조차 모자라서 「벨라그라」라는 榮養素欠乏症이 蔓延되었고 이때문에 北韓은 日本으로부터 大量의 止血劑를 輸入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北韓의 食糧增産政策은 農民의 集團的經營에서 오는 非能率性과 肥料 및 農藥의 不足, 農耕地의 狹少, 勞動力 및 農業技術不足 등으로 落後性을 면치 못하고 있다. 北韓의 總面積 1230만정보중 77.5%의 山岳地帶를 제외하고 農耕地는 17%인 209만정보인데 74年 통계에 의하면 곡물생산량이 3,424천톤이고. 蓄積가 80만톤으로 모두 4,224천톤이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74년에 米穀生産이 ha당 3,690 Kg로서 北韓의 2,700 kg보다 1.4배 높으며 人口1人當 消費量은 71년에 우리나라의 390 kg에 비해 北韓은 290 kg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는 近年에 더욱 擴大되고 있으며 우리는 지난 10년동안 品種改良, 農業技術의 발전등으로 75년에 이르러서는 主食인 쌀과 보리는 自給自足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쌀은 60년에 2,130万石을 生産했으나 75년에는 3,200万石으로 自給自足を 이루게 되었고 76년에는 3,600万石을 생산하였다. 이는 解放前의 우리나라 南北韓의 全生産量 1,500万石의 2배가 넘으며 과연 우리는 綠色革命을 이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76년에 米穀의 剩餘量 900万石과 生産量 3,600万石을 합하여 4,500万石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77년의 消費量 3,300万石보다 1,200万石이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하게 人道的인 見地에서 北韓이 원한다면 北韓同胞를 위하여 食糧援助를 할 用意가 있다고, 지난번 年頭記者会見에서 밝힐 수 있게 된 것이다.

北韓은 副食物도 主食과 마찬가지로 매우 곤란한 형편이다.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을 콩이 모자라서 一般家庭에서 담글 수 없으며 食料品工場에서 제조 供給하고 있으나 品質도 나쁜뿐 아니라 品貴伏患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이러한 醬類의 生産을 家庭에서 담그는 工場에서 제조하는 그 品質이 우수하고 표준화되며 市場價格으로 얼마든지 完買된다면 家庭에서 담그는 것 보다도 製造公장에서 생산하는 것이 오히려 近代的이고 能率的일 수도 있다. 韓半에서도 점차 食品工業이 발전되고 있어 그와 같은 과정으로 移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는 食品의 企業的生産이라기 보다도 集産体制과 大豆의 不足으로 인한 生産不足을 配給制度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다르다.

肉類는 6개년計劃의 목표년도인 76년에 40万톤을 計劃하고 있으나 실제의 生産水準은 30万톤을 약간 上廻하고 있으며 더우기 住民用供給量은 매우 적다. 최근 屠宰工場을 國營으로 擴大시킨 후 屠宰고기는 소나 돼지고기보다 형편이 나아졌으며 계란을 비롯하여 메추리알 등이 年間 7억개로써 1人당 50개에 해당되는 生産實踐이다. 이는 韓國의 경우 계란 1人당 120개인 것에 비하여 2분의 1도 안된다. 더우기 우리는 쇠고기가 一時 不足할 것으로 予想될 때에는 뉴질랜드에서 牛肉을 輸入하여 供給하였으나 輸入牛肉이 全量 消化되지 않아 남아 돌아갔던 것과 비교하면 北韓의 肉類消費量은 우리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註11) 織物과 섬유류등의 生産 및 消費水準은 더욱 더 비교할 수 없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年間 80억달러의 輸出額中에서 섬유류가 30%를 넘고 있으므로 적어도 30억달러를 輸出하고 있는 셈이며, 모든 國民은 國際적으로 上위에 속하는 品質의 國產織物로 豐족한 衣類消費를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北韓은 年間 4億m의 織物生産量으로 이는 1人당 26m에 不過한 형편이며 黑과 白의 단조로운 옷차림조차도 여유있게 衣類消費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輕工業을 무시하고 重工業爲主의 經濟開發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

TV受像機는 76년에 10万臺의 生産水準을 計劃하고 있으며 그

註11) 이 部門의 北韓資料는 統一研修所刊, 民主統一(1976)에 依함.

밖에 冷蔵庫와 같은 文化生活을 위한 耐久消費財는 더우기 생각할 수도 없을만큼 低位에 있다. 그것은 重工業優先政策下에서 生必需品도 아닌 耐久消費財를 開發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TV 受像機의 경우 이미 73년에 1百萬臺의 普及率을 넘었고 현재 2百萬臺以上の 普及이 이루어져 都市는 물론이며 農村의 구석 구석에 TV 受像機가 보급되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일이다.

## 第2節 農村의 家計所得과 生活水準

南北韓의 農村經濟 및 農村家計의 격차는 더욱 격심하다. 원칙적으로 勞動者와 農民을 위한다는 北韓共產主義社會에 있어 農村經濟는 都市經濟보다도 韓國에 비하여 低位에 있어야 하겠는데 現狀은 이와 正反對인 것은 무슨 理由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北韓의 경우 重工業爲主의 經濟開發과 이에 소요되는 莫大한 投資資金을 오로지 國內貯蓄에 의해서만 조달해야 하는 아우탈키의 經濟體制에 있어서 唯一한 資金調達源은 勞動者나 農民의 犧牲에 의존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北韓에 있어서 一般 工業部門에 있어서의 勞動力榨取도 莫大하게 크지만 무엇보다도 農業部門의 資本調達源으로서의 役割은 중요한 것이므로 農村剩餘의 수탈이 가장 必要한 資金蓄積方式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日本 帝國主義初期의 近代化過程에서도 엿볼 수 있었던 것으로 요컨대 農民을 犧牲시켜 産業資本을 조달하는 방식은 全

體主義의 獨裁社會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北韓에 있어서 그동안 工業化資金의 相當部分을 農業部門에서 조달하기 위하여 農民의 生活은 돌아볼 餘地가 없었고, 그들은 農民에 대하여, 工業化資金의 農民負擔이 社會全體에 利益이 될 뿐 아니라 農業의 장래발전과 農民生活의 장래의 向上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甘言利說을 해왔던 것이다.

더우기 農民生活은 韓國처럼 生産과 消費가 비록 未分離되었을지라도 家計의 生計를 위한 生業이 될 수도 없고, 또한 市場機能을 통한 農業生産物의 交換도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의 協同農場組織에 의한 生産과 配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農民收奪은 最大限으로 可能한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北韓社會의 農民收奪方式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生産組織과 分配體系가 연결된 그들의 農業管理體制를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北韓에 있어서는 農業生産物의 分配는 農民生活이나 農民의 生産量에 비례되지 않고 오직 農民收奪을 目的으로 한 役下勞動力의 再評價方式과 관련되고 있다. 그들은 協同農場에 分組을 두고 分組마다 土地, 役牛, 農機具 등의 生産手段과 勞動力을 고정시키고, 이러한 一定한 生産條件下에서 中央計劃當局은 段步當年間收穫量을 정하여 勞動力投下計劃을 지정하고 그 計劃의 進展度에 따라 分組의 構成員의 稼働勞動日數를 再評價함으로써 農産物을 分配해주는 것이 協同農場의 勞動組織과 勞賃支給方式인 것이다.

이와같이 農民에 대한 農産物의 分配을 勞動組織과 勞動日數評價



에 의하여 행하는 것은 마치 生産工場에서 勞動力을 強化하기 위하여 고안한 테일러·씨스럼(Taylor's system)과 같은 것이며 특히 農業에 있어서는 工業보다 生産期間이 長期的이고 生産單位が 광범위하게 地域적으로 分散되어 있고 農作物은 工業製品과 달라서 세심한 주의를 必要로 하는 生物體이기 때문에 分組라는 單位組織을 責任單位로 정하고 극도의 勞動力強化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註12)

더우기 協同農場에서 作業하는 農業勞動力의 제공은 家口마다 다르므로 農家의 生産物分配分은 勞動者가 많은 家口와 적은 家口에 따라 格差가 심하며 그렇다고 해서 單位勞動者가 아무리 열심히 勞動力을 投下해도 再評價日數以上の 分配가 不可能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녀자와 어린이와 老人에 이르기까지 勞動力提共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韓國에 있어서 農事部門의 課題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農業生産이 企業化되지 못했다는 點이며, 둘째는 自然條件에 制限을 받는 劣勢産業的인 農事部門의 生産 및 所得增大의 限界性이다. 農業生産의 企業化問題는 經營單位에 맞는 大規模의 農地確保에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國土面積이 좁은 나라에서 반드시 効果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企業化를 위한 農業의 大規模化보다도 自立安定農家의 育成에 目標을 두고

---

註12) 金文植, 北韓의 農林·水産業, 北韓經濟, 中央日報부설東西問題研究所

있으며, 生産에 있어서는 農家相互間的 協業에 의한 機械化와 近代化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것은 새마을運動에 의하여 크게 효과를 보고 있다. 새마을運動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協同이라는 것은 精神面에 있어 모든 國民의 生活精神이 되어야 하겠으나, 특히 農業部門에 있어서는 個別農家の 耕地의 限界性을 克服하고 農業近代化를 위한 協業生産組織의 精神的基盤이 되기 때문에 이는 農業部門의 경우 生産과 消費의 兩面에서 모두 必要로 하는 精神的基盤인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 農業部門의 相對的位置는 經濟發展과 더불어 低下될 수 밖에 없으나 農家所得의 相對的水準은 向上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農業生産에 있어 生産과 消費가 非分離된 小農生産方式이 營爲되고 全體農家の 67%가 1.0ha 未滿의 小農이라는 制約條件때문에이기도 하나, 한편 工業生産의 劇期的增大와 輸出産業主導의 成長政策에 따라 非農業部門의 經濟的構成이 점차로 커졌기 때문에 農業生産額이 GNP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1962年의 36.6%에서 74년에는 25.3%로 減少되었고, 또한 農業人口는 같은 기간중 57.6%에서 40.2%로 減少되었다. 그러나 農家戶數는 큰變動이 없어 戶當耕地面積은 아직도 1.0ha 未滿의 小農規模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農家所得의 絕對的인 水準은 崙론이며 相對的으로 都市家計보다 점차 改善될 수 있는 것이다.

表2에서 보듯이 日本에 있어서는 農家の 戶當耕地面積이 1.1ha

에 불과한 小農經濟下에서 GNP에 대한 農業의 比重 및 農村人口의 低下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資本主義下의 農業 및 小農經濟는 經濟成長에 따라 外部經濟와의 相互依存關係는 더욱 커지게 됨으로써 農民의 生活은 向上될 수 있는 것이다.

〈表 2〉 韓國과 日本의 農家經濟指標

	단 위	韓 國		日 本	
		1962	1974	1962	1974
1人当 GNP	달 러	87	483	563	4,116
GNP中 農業構成	%	36.6	25.3	11.5	6.3
耕地面積	ha	2,030	2,241	6,081	5,615
耕地率	%	21.0	22.2	16.5	15.1
農家戶數	千戶	2,470	2,381	5,655	5,027
農家人口	千人	15,027	13,467	32,195	23,195
總人口中 構成比	%	57.6	40.2	33.8	21.1
戶当耕地面積	ha	0.84	0.94	1.00	1.12

資料：우리나라 農家經濟의 構造的 變化, 농협조사월보, 1976.8 P.5

다시말하면 農業部門은 經濟成長에 따라 非農業部門의 雇傭機會가 증대되고, 兼業化가 進行될 수 있으며 農業勞動力의 流出에 따른 生産要素의 再編과 勞動生産性의 向上, 農業形態의 多角化, 農産物價

格의 相對的引上됨이 진행 되기 때문에 農村家計의 所得은 증대될 수 있는 것이다 .

이에 비하여 北韓의 共產社會에 있어서는 經濟發展에 따른 外部 經濟와의 相互依存關係를 단절시키고 黨計劃機構가 그 剩餘面價의 向上分을 搾取하게 되기 때문에 農民生活에는 아무런 向上을 볼 수 없는 것이다 .

韓國에서는 60年代 後期부터 高米面政策에 의한 兼業所得의 현저한 增大와 農村地域의 새마을工場建設 및 道路網의 補充에 따른 交通事情의 好轉등으로 非兼業部門에 의 고용기회가 늘어났을 뿐만아니라, 兼業所得의 擴大등으로 兼業外所得도 또한 현저히 증대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農家所得은 62년에 비하여 74년에 약 10 배나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

〈表 3〉 農家所得의 相對的 比較

(單位：千圓，千円，%)

	韓  國			日  本		
	農家所得	都市家計所得	相對所得 (%)	農家所得	都市家計所得	相對所得 (%)
1962	67.9	65.5	103.6	525.4	621.5	84.5
1974	674.5	644.5	104.6	2,945.9	2,469.6	119.3

資料：〈表 2〉와 同一

〈表4〉 農家所得의 構成

(단위 : 원)

	1962	1974	1974 1962
農家租收益 (A)	173,416	664,411	9.0
農家所得 (B)	67,885	674,451	9.9
農家所得 (C)	54,026	541,902	10.0
家計費 (D)	55,739	435,490	7.8
農家依存度 (C/B)	79.6	80.3	1.01
農家所得率 (C/A)	73.6	81.6	1.11
家計費充足率 (C/D)	96.9	124.4	1.28

資料 : 〈表2〉와 同一

(단위 : 원)

1962	1974	1962	1974	1962	1974
8.48	8.19	4.00	6.00	8.00	9.50
8.91	8.88	8.00	4.00	8.40	8.00

資料 : 〈表2〉와 同一

특히 1962년에는 農業所得이 家計費보다 不足하여 農業所得의 家計費充足率은 96.9%에 불과했으나 74년에는 124.4%로 크게 向上된 것은 高米價政策 등에 따라 農産物價格이 工産物價格보다 현저히 上昇됨으로써 農家の 購入物價價格과 農産物 販売價格間的 패리티指數가 크게 개선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도 日本에 비하면 農業外所得의 比重이 크게 向上되지 못하여 農家所得의 農業依存度가 62년의 79.6%에서 74년에는 80.3%로 1.1배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日本의 경우 74년에 31.3%밖에 안되는 것에 비하면 農業依存度가 아직도 매우 높은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農村所得이 얼마든지 더 增大될 수 있는 可能性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農家도 日本만큼 兼業이 발달되어 農業外所得이 늘어나게 되면 農村所得은 훨씬 커질 것이다. 日本의 경우 農家所得의 農業依存度가 1962년에 51.4%이던 것이 65년에는 48.0%로써 50%未滿이 된 것은 이때부터 農村家計는 農業이 主業이 아니고 非農業이 主業이고 農業은 副業으로 轉換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農村家計는 아직도 80.3%가 農業依存이므로 農業이 主業인 것이나, 이것이 50%未滿으로 되면 主從이 轉換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共產體制인 北韓에 있어서는 農業의 協同化, 즉 協同農場의 經營에 의하여 모든 問題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으나 結果는 오히려 非能率的이다. 즉 協同農場은 大規模經營이 가능하므로

만일 資本主義의 概念으로 본다면 企業化가 可能할 것이나, 共產主義에는 企業이 없으므로 企業的 生産이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農業部門은 工業部門에 비하여 經濟的 位置의 相對的 低位는 말할 것도 없으며 農民所得이 工場勞動者보다도 低位에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北韓社會에 있어서도 農村의 歷史的 後進性, 農業生産의 自然的 制約性, 農村의 分散, 農民의 文化的 落後性등은 탈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農村社會보다 나아 수가 없는 데다가, 우리와 같은 經濟發展에 따른 外部 經濟의 惠沢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커다란 進展을 볼 수 없는 것이다.

끝으로 農村의 生活水準에 대한 구체적인 變化는 韓國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만큼 그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 첫째 이유는 韓國農村家計는 貨幣의 利用率이 점차 커져서 市場經濟의 利用이 커지는데 반하여 北韓에 있어서는 市場經濟가 存在하지도 않고 分配分의 基準이 固定되어 있기 때문이며 둘째로 韓國의 農家は 餘裕資金이 늘어나 貯蓄과 農業外事業의 擴大가 可能해 질 수 있는데 반하여 北韓農民의 貯蓄이란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農家經濟의 貨幣化率은 生産面에서 商品化 정도를 나타내는 農業粗收益의 貨幣化率과 消費面에서 購入依存의 정도를 나타내는 家計費의 貨幣化率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農業粗收益의 貨幣化率은 1962年의 27.5%에서 74년에는 39.9%로 크게 늘었으나 아직도 日本의 87.0%에 비하면 그 격차가 현저하다.

이는 國民의 食生活構造의 變化에 따른 經濟作物의 栽培 및 農業 外所得의 擴大에 기인된 것이며, 앞으로 日本과 같은 水準에 이르려면 한층더 그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다. 한편 家計費의 貨幣化率은 1962年의 36.4%에서 74年에 48.8%로 높아졌으며 日本의 86.0%보다는 현저히 떨어져 있으나, 日本의 生産 및 消費의 兩面에 있어 貨幣化率이 월등히 높은 것은 전적으로 兼業의 비중이 農業보다 커서 現金收入이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우리의 農村은 그동안 農村生活樣式도 점차 都市化됨에 따라 自給自足的 消費의 性格이 弱해지고 있으나 앞으로 兼業收入이 커지면 貨幣經濟의 比重이 그만큼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農家의 可処分所得에 대한 家計費支出의 平均消費性向은 1962年에 84.6%이었으나 74年에 66.0%로 크게 低下되었다. 이것은 農家의 剩餘가 그만큼 늘었음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農家가 長期的으로 黒字의 安定된 狀態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 第 3 節 賃金과 生計費

南北韓의 賃金 및 生計費도 역시 體制의 差異와 北韓에 있어서의 統計未發表 등으로 直接的인 比較가 不可能하나 比較 가능한 現象을 고려하면 역시 格差가 대단히 심하다고 판단된다.

그 理由는 北韓의 경우 모든 勞動力이 中央集權的인 管理當局에 의하여 계획대로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軍需産業과 重工業에 直重한



개발계획에 필요한 資本調達을 위하여 근본적으로 勞動力搾取가 可能하기 때문이다. 北韓의 勞動力人口는 男子의 경우 16~60才, 女子의 경우 16~55才까지의 全人口이며 이들은 무조건 勞動에 종사해야 한다. 北韓의 勞動者나 事務員中 女子의 比重이 54%, 나 되는 것을 보면 누구나 勞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一般勞動者의 年間 勞動日數는 보통 340日로써 月平均 28日이며 따라서 土曜日도 平日과 같이 근무해야 한다. 한편 1日勞動時間은 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社會主義競爭運動에 따라 自進勞動形態로 초과노동을 시킴으로써 보통 10~14時間 勞動하고 있다.

이와같은 勞動力動員 및 勞動力強化에도 불구하고 賃金水準은 매우 적다. 1970년에 勞動者와 事務員의 보수를 31.5% 올려서 平均 70원선에 이르게 했다고 公式発表하고 있는데 이는 約29달러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1975년의 鉅工業平均賃金은 月中 39,368원인데, 北韓과 비교하기 위하여 70년의 水準을 보면 製造業만 月平均 17,490원이다. 이는 70년의 換率 316.65로 換算하면 55달러로써 北韓의 賃金水準 29달러보다 훨씬 높다. 北韓의 賃金은 物価와 더불어 長期間 固定되고 있으므로 75년에는 鉅工業 平均賃金이 月中 39,368원으로 換率 484원으로 나누면 84달러에 해당되므로 北韓과의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된다.註14)

---

註14) 北韓側資料는 「民主統一」(1976), 韓國側資料는 企業經營分析(1976).

한편 生計費의 비교는 불가능하나 生活必需品의 消費者價格을 비교해 보면 대단히 격차가 크다. 食料品은 北韓에서는 配給制度이므로 그 比重이 얼마나 될지 모르나 담배 1갑이 1원, 쇠고기 1kg에 7.5원, 속내의는 한벌에 15원, 양복은 200원, 라디오는 250원이므로 月 70원의 賃金으로는 담배 70갑, 쇠고기 9.3kg, 속내의 4.7벌을 살 수 있으며 양복은 3.6개월, 라디오는 4.5개월의 賃金으로 1개를 구입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70年度 平均賃金으로 담배는 175갑, 쇠고기 17.5kg, 속내의 16.7벌, 양복 1着, 라디오 4.4대를 구입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sup>註15)</sup>

이중에서도 담배와 쇠고기 등의 農産物의 購入費用은 차이가 적으나 속내의 洋服 등의 직물 및 衣類와 특히 라디오와 같은 耐久消費財는 더욱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農産物中 食糧은 어차피 배급제이지만 다른 農産物이 工産物보다는 相對的으로 價格이 低廉한 것은 그만큼 農民收奪을 해서라도 生必需品인 農産物의 均等配分을 고려한 까닭이며 輕工業製品은 重工業為主의 經濟計劃에 따라 기본적으로 生産이 不足한데다가 對外輸入도 하지 않을 것이므로 價格이 높다고 보겠다.

---

註15) 南北韓의 經濟體制比較研究.

### 第 3 章 南北韓의 實質國民所得

#### 第 1 節 國民總生産과 産業別生産

지금까지, 우리는 國民厚生과 福祉向上이라는 측면에서 南北韓의 政策當局의 政策方向과 실제 國民生活이 어떠한가를 비교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實質國民所得을 비교함으로써 窮極에 있어서 國民厚生の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고찰하여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우선 實質國民所得의 비교에 앞서 生産의 측면에서 國民總生産이 어떤 水準에 있는가를 간단히 검토함으로써 國民所得 및 厚生の 檢討에 대한 기본적 자료로써 利用하고자 한다.

北韓의 경우 그동안 經濟開發은 네가지 단계를 밟아 왔다. 이것은 韓國經濟가 經濟開發을 착수하기까지의 이전에는 몰라도 經濟開發을 착수한 이후 꾸준한 高度成長을 추구하고는데 一貫했던 것과는 다르다. 물론 北韓의 경우에도 처음의 두 단계는 韓國이 經濟開發을 착수하기 이전의 단계와 같으므로 특별히 고려할 가치는 없다. 즉 第 1 段階는 6.25 以前으로써 技術革新의 準備期間이었다. 이때는 南北兩斷後 南農北工이라는 立地的 條件과 政治的 過渡期에 있어서 獨裁主義的이던 北韓이 솔직히 말해서 優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第 2 段階는 休戰後 60 年까지의 戰後復興期로써 北韓에 있어서는 社會主義先進國技術의 모방기에 속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대로 이 時期에는 소聯, 中共 및 東歐共產圈의 援助에 의하여 戰後復旧을 위한 3個年計劃과 이어서 社會主義 工業發展을 위한 5個年計劃을 큰 차질이 없이 실시할 수 있었다. 소聯의 技術援助로 1954年 1월에 착수한 水豊發電所는 1958年 8월에 준공되었고 赴戰江發電所도 蘇聯과 中共의 援助로 1955년부터 61年 9월까지에 준공하였고 그밖에 平壤火力, 平壤絹織物, 雲峰發電所, 熙川工作機械, 南浦製鍊所 등이 이 時期에 建設되었다.

그러나 第3, 4段階에 있어서는 共產圈의 援助가 없이 自力으로 經濟計劃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計劃을 완수하지 못하고 차질을 면치 못했다. 第3段階는 소위 社會主義의 先進國技術을 모방하는 新技術開發期로써 1961년부터 7個年計劃을 착수하여 工業部門에 있어서의 生産工程의 機械化와 自動化를 目標로 했고 農業部門의 機械化, 水利化, 電氣化, 化學化 등 4化를 추진하였으나 期間中에 計劃을 완수하지 못하여 7個年計劃을 70년까지 3年間 연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第4段階는 社會主義先進國뿐 아니라 資本主義先進國技術까지도 도입하려는 의욕적인 계획에 따라 그들의 이론바 先進國技術進路期로 設定하고 6個年計劃을 착수하여 東西間의 네탕트時期를 이용하여 日本, 西獨, 英國 등 先進資本主義, 國家로부터 플란트와 技術을 도입하였다.<sup>註16)</sup> 그러나 그동안의 아우탈키의 經濟體制와 重工業爲主의

註16) 全應烈, 北韓經濟의 計劃管理體制, 北韓經濟.

不均衡成長으로 인하여 이들 先進國으로부터의 外債償還에 차질이 생겨 한층더 심각한 難境에 빠지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1960年代以後의 北韓의 國民總生産의 趨移에 대해서는 그들의 國民總生産概念이 우리와 다르므로 정확히 추계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1970年까지는 그런대로 신빙할 만한 추정이 可能하였으며 70年代에 들어서는 추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表 5>는 中央情報部와 統一院에서 추계한 北韓의 GNP의 추세이다. 이 表에서 1965年부터 70年까지의 두 추계를 비교해 보면 中央情報部の 추계는 비교적 成長이 완만한데 反하여 統一院의 추계는 다소 成長이 급격하다. 특히 1965-68年까지는 統一院의 推計가 中央情報部보다 1年程度 低水準이었으나 68년에는 같고 69~70年은 앞지르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그리고 統一院 推計에 있어 6個年計劃期間인 71~75年の 年平均 成長率은 10.6%이나 이것은 다소 誇張되었을 可能性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비하여 中央情報部の 推計는 71~76年에 있어 統一院의 推計보다 한층더 높다. 中央情報部の 推計는 71~76年間 北韓貨幣로는 年平均 10.3%의 成長으로 統一院의 10.6%보다 다소 낮으나 美貨로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換率適用에 있어 70~71年은 1弗對 2.57圓, 72年은 1弗對 2.37圓, 73年以後는 1弗對 2.2.05圓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北韓의 貨幣價值는 不變이고 美貨는 平価切下分만큼 換率을 切下했는데 北韓의 貨幣價值를 고정시킨 것은 社會主義體制에서는 計算價格으로써 不變價格이라고 보았기 때문인 것 같다.

<表 5 >

北韓の 国民総生産

(単位：百萬美弗)

	情報部推計		統一院推計		
	国民総生産	成長率	国民総生産	成長率	資本系数
1960	1,265	-	-	-	-
1965	1,983	9.1	1,810	-	-
1966	2,067	4.2	1,920	6.1	3.3
1967	2,328	12.6	2,110	9.9	2.3
1968	2,584	11.0	2,570	21.8	1.4
1969	2,649	2.5	2,720	5.8	4.7
1970	2,998	10.2	3,190	17.3	1.6
1971	3,221 <sup>e)</sup>	7.4	3,460	8.5	3.4
1972	3,853 <sup>e)</sup>	19.6	3,750	8.4	4.3
1973	4,953 <sup>e)</sup>	27.5	4,208 <sup>e)</sup>	12.2	3.5 <sup>e)</sup>
1974	5,459 <sup>e)</sup>	10.3	4,762 <sup>e)</sup>	13.2	3.5 <sup>e)</sup>
1975	5,977 <sup>e)</sup>	10.3	5,382 <sup>e)</sup>	13.0	3.5 <sup>e)</sup>
1976	6,594 <sup>e)</sup>	10.3	-	-	-

e) 仮定

資料：南北韓經濟力比較，中央情報部 與 北韓 6 個年計劃 綜合評價，

1976.8. 国土統一院.

北韓当局은 71~74年間に 年平均 14.2%의 높은 成長을 하였다고 発表하고 있으나 최근 外債償還의 不履行으로 곤경에 빠진 것을 보면 그러한 高度成長은 誇張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75年の 1人当所得은 統一院에서 推計한 53.8億달러를 人口 15,731千名으로 나누면 342달러인 셈이나 이밖에 여러기관에서 推計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66년까지는 1人当所得이 500원으로써 美貨로는 223.7달러인데 그후에는 각 기관마다 評價額이 다르다. 美 CIA에서는 年 7.6%의 成長率으로써 70년에 300달러로 推計하고 있으므로 그후에도 같은 成長率을 적용시키면 75년에는 432.6달러, 76년에는 465.5달러가 되며, 世界銀行은 年 7.8%의 成長率으로써 69년에 280달러로 推算하고 있으므로 같은 成長率을 적용시키면 75년에 439.4달러, 76년에 473.7달러가 된다. 美軍備管理軍縮当局은 年 9.4%의 한층 높은 成長率으로써 70년에 320달러로 推算하였으며 같은 成長率일 경우 75년에는 501.4달러, 76년에는 548.6달러가 된다. 이에 비하여 말크·게인(Mark Gayn)은 1%의 成長率으로써 72년에 237달러로 推算하고 있으므로 같은 成長率일 경우 75년에는 246.7달러, 76년에는 249.1달러가 된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推定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찾을 수 없으나 北韓은 1961~70年の 人口增加率이 2.86%로 비교적 높은 水準에 있으므로 만일 GNP의 成長率이 10%라면 1人当 GNP는 7.14%씩 成長될 것이므로 美

CIA의 7.6%, 세계은행의 7.8%가 低評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63 ~ 66年間の 1人當 GNP成長率 4.7%를 고려하면 그후에 成長率이 거의 2배에 가깝게 推計한 것은 오히려 誇張된 評價가 아닐까 생각된다.

<表 6> 北韓의 1人當 GNP (單位:美弗)

	統一院 1)	中央情報部 1)	美 CIA	世界銀行	美軍備管理局 軍 縮 局	Mark Gayn
1960	-	120	155.3	155.3	155.3	155.3
1965	147.7	162	213.9	213.9	213.9	213.9
1966	152	164	223.7	223.7	223.7	223.7
1967	163.2	180	240.7	241.7	244.7	225.4
1968	193.6	195	259.0	259.9	267.7	228.2
1969	199.5	194	278.7	280.0	292.9	230.5
1970	227.8	209	300.0	(301.8)	320.0	235.1
1971	240.2	225	(322.8)	(325.4)	(350.1)	237.0
1972	253.1	262	(347.3)	(350.8)	(382.9)	(239.4)
1973	276.2	326	(373.6)	(378.1)	(418.9)	(241.7)
1974	303.8	352	(402.1)	(407.6)	(458.4)	(244.2)
1975	342.1	379	(432.6)	(439.4)	(501.4)	(246.7)
1976	-	408	(465.5)	(473.7)	(548.6)	(249.1)

1) <表 5>를 人口로 나눈 것임.

2) ( )内 數字은 같은 成長率로 計算한 數字임.

資料: <表 5>와 同一.



아무튼 1966年의 北韓의 1人當 GNP가 223.7 달러인 것은 韓國의 126 달러보다 월등히 높았고 이것이 國民厚生의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北韓의 1人當 生産量水準이 우리보다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國土面積과 그밖의 資源條件에 있어 北韓이 우리보다 成長率이 거의 2배에 가까우므로 誇張된 評價라고 생각된다.

統一院 또는 中央情報部의 推計値에 의하더라도 1968年前에는 北韓의 1人當 GNP가 韓國보다 높다. 1966年에도 北韓의 1人當 GNP는 164 달러로 韓國의 124 달러보다 높으며 外國機關의 推計 223.7 달러는 이보다도 더 높다. 1968년에는 北韓이 195 달러, 韓國은 168 달러로 여전히 北韓이 높았으나 69년에는 北韓의 194 달러에 비해 韓國은 208 달러로 높아졌고 그이후 南北韓의 1人當 GNP 격차는 점점 더 韓國이 커져서 75년에는 342 달러 對 532 달러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南北韓의 國土 및 資源環境은 거의 비슷하나 人口가 北韓보다 南韓이 월등히 많았으므로 初期에는 당연히 北韓의 1人當 生産量이 컸으나 점차 南韓의 經濟成長率이 높고 人口增加率은 적어서 68年을 고비로 南北韓의 1人當 GNP의 分岐點이 된 까닭이다.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으나 北韓은 第3段階에 속하는 1960年代의 自力開發段階에 있어서 7個年計劃의 失敗와 70年代의 第4段階의 開發期에 있어서 先進資本主義國의 經濟協力을 받아 드

렸으나 國際競爭力이 없어서 外債償還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問題가 생긴 反面에 韓國은 60年代부터 本格的인 經濟開發을 추구한 以來 開放體制에 의하여 國際協力を 잘 利用하고 輸出主導型 成長에 成功함으로써 持續的인 高度成長을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韓國은 76年の 1人당 GNP가 690 달러에 이르게 됨으로써 日本의 63年の 水準과 비슷하며 특히 輸出은 80億달러를 기록함으로써 日本의 66年の 水準과 같게 되었고 앞으로 이러한 추세를 계속할 경우 4次計劃이 끝날 81년에는 1人당 GNP 1,500 달러와 輸出 200億달러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産業別成長에 있어서는 南北韓의 開發方式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더욱 주목할 만큼 다르다. 韓國에 있어서는 産業別 潛在成長力의 자연스런 開發에 따라 輕工業을 먼저 開發한 후에 重工業 開發에 착수하였으나 北韓은 처음부터 輕工業을 무시하고 重工業優先의 開發方式을 택하였다. 뿐만 아니라 北韓의 立地條件은 農業보다 工業이 有利하기 때문에 南韓보다 工業의 比重이 처음부터 월등히 크다. 1960年の 北韓의 GNP에 대한 農業部門의 比重은 28.9%, 工業部門은 41.3%, 其他部門은 29.8%이었고 1970년까지 GNP 成長率은 年平均 8.7%이었음에 비하여 農業部門은 5.6%, 工業部門은 12.3%, 其他部門은 4.5%로써 70年の 部門別構成比는 각각 21.5%, 57.3%, 21.2%로 변하였다. 여기서 特徵的인 것은 工業部門의 比重이 큰것은 물론이지만, 또한 3次産業에 해당되는 其他部門이 적은 것이다.

<表 7 >

韓 國 的 國 民 總 生 產

	國民總生產 1) (10 億 圓 )	1 人 當 GNP ( 鎊 鎊 )	GNP 成 長 率 (%)	1 人 當 GNP 成 長 率 (%)
1960	1,129.7	81	1.9	
1962	1,220.9	87	3.1	4.8
1966	1,719.7	126	12.4	18.8
1967	1,853.0	143	7.8	13.4
1968	2,087.1	168	12.6	17.5
1969	2,400.4	208	15.0	23.8
1970	2,589.2	242	7.9	16.3
1971	2,826.8	275	9.2	13.6
1972	3,023.6	304	7.0	10.5
1973	3,507.5	376	16.5	23.6
1974	3,811.3	483	7.6	28.4
1975	4,129.3	532	8.3	10.1

1) 1970 年 不 變 價 格

資料：韓國經濟의 어제와 오늘; 大統領秘書室 및 韓國의 國民總  
生 產, 한국은행

北韓은 市場經濟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3 次産業의 附加價值가  
그만큼 적다고 생각된다.

韓國에 있어서는 1960年의 産業別構成比가 農林漁業은 41.3%,

鉦工業은 12.1% 社会間接資本 및 서비스가 46.6%로써 鉦工業 比重이 적었으나 75년에는 각각 21.6%, 33.1%, 45.2%로 크게 변하였다. 그리하여 工業部門의 비중은 아직도北韓이 높지만 農業部門의 比重은 兩北韓이 거의 같게 되었고 그만큼 우리의 工業化의 進歩가 더욱 빠르게 進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1960년부터 75년까지 15년동안의 鉦工業의 年平均成長率은 17.8%로써北韓의 60~70年間的 年平均 12.3%보다 월등히 높다. 특히 第2次 5個年計劃以後의 우리의 工業成長率은 21.3%로써 매우 높다. 우리는 第1次 5個年計劃期間中(62-66)에는 石炭, 電力, 精油 등의 에너지 産業과 肥料, 시멘트 등의 基礎産業을 開發했고 아울러 纖維産業을 비롯한 輕工業은 輸入代替産業으로 育成된 후 第2次計劃(67-71)때부터는 本格的인 輸出産業으로 신장되기 시작하였으며, 鉄鋼, 機械, 電子, 石油化學 등의 重化學工業이 2次計劃以後 開發되어 3次計劃(72-76)때에는 한층더 本格的으로 育成되고 이들 重化學工業製品이 輸入代替와 輸出産業化함으로써 4次計劃期間(77-81)에는 自立經濟를 完成시킬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특히 現代의 工業化에 있어 중추적 산업인 機械工業은 電氣機械, 輸送用機械, 産業用機械, 精密機械의 順序대로 착실하게 開發되어 5次計劃의 80年代에도 主導的 産業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1960년에는 輕工業과 重工業의 比率이 80對 20이던 것이 75년에는 57.2%對 42.8%로 되었고 81년에는 48.5%對 51.5%로써 重工業의 比重이 더욱 큰 工業國家가 될 것이다.

이에 비하여 北韓에 있어서는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重工業 優先政策을 추진한 결과 처음부터 輕工業보다 重工業의 比重이 높아서 重工業에 80%의 偏重된 投資를 실시하였고 工業生産의 成長率은 年度에 따라 起伏이 극심하여 信憑性이 매우 적으나 60~70年의 期間中 工業成長은 年平均 12.3%에 不過했고 특히 7個年計劃期間中 工業成長의 目標은 年間 18%이었으나 実績은 12.8%에 불과하여 同計劃의 失敗의 한 요인이 되었다. 이와같은 7個年計劃의 失敗의 原因은 累次 여러 研究報告書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過渡한 計劃에도 기인되지만 한편 共產圈의 技術 및 經濟援助가 중단된 후 設備 및 技術開發에 있어서 自力으로 目標達成에 충분할만큼 計劃을 추진할 能力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勞動力強化에 의한 生産方式의 限界성과 특히 勞動者의 技術水準을 提高시키는데 失敗했기 때문이다. 특히 重工業의 계속적인 發展을 위한 設備確保의 차질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6個年計劃에 있어서는 先進資本主義國家로 부터의 經濟協力에 依存한 設備導入을 추진하였으나 計劃期間이 다 끝나기도 전에 海外資本導入의 償還에 차질을 빚게 됨으로써 앞으로의 經濟開發을 中斷할 수도 없고 추진할 수도 없는 매우 어려운 困難을 겪게 된 것이다.

石油波動後에 대부분의 非産油開發途上國은 1974~75年의 兩년에 걸쳐 經常國際收支의 赤字幅이 大幅 擴大되어 外貨의 支給能力이 현저히 惡化되었다. 우리도 1973년에는 經常收支 赤字가 3億달러로 크게 감소되었으나 74년에는 18億달러로 一時에 크게 늘었

고 75年 3月에는 外換保有高가 8億달러에 不週하여 一時 外貨事情이 우려되기도 했으나 75年 4月부터 景氣回復과 輸出增大로 經常收支赤字는 大幅 감소되고 外換保有高도 계속 늘어나 76年 下半期에는 史上最初로 貿易收支의 黒字와 28億달러의 外換保有高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것은 韓國經濟의 輸出潛在力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며 우리는 非産油開發國中에서는 74~75年の 不況을 가장 착실하게 넘긴 國家에 속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70年代에 와서 莫大한 外債를 導入했던 一部 開發國들은 外債의 元利金償還 負擔이 점차 커진데다가 國際競爭力이 弱하여 주로 1次産品을 輸出했던 이들 開發國들은 石油波動後 原料價格의 急落과 石油價의 急騰에서 생긴 二重의 要因에 의한 貿易收支赤字의 擴大로 결국 對外支給의 履行이 不可能한 狀態에 빠졌다. 최근 國際金融市場에서 支給不履行事態에 빠진 나라들은 자이레, 아르헨티나 및 北韓의 3個國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에 北韓이 끼이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하여 韓國은 開發途上國中에서 借入能力이 公認된 5個의 小數國家에 포함되고 있어 유로市場에서 韓國에 대한 信用供與는 다른 어느나라 보다도 착실하게 증가되고 있다.<sup>註17)</sup> 國際金融市場에서 借入能力의 판정은 무엇보다도 이들 開發途上國이, 債務履行에 필요한 外貨를 획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의존되며 이들 國際金融市場의

註17) 韓國以外的 信用이 公認된 開發國은 브라질, 멕시코, 페루, 필리핀의 4個國이다.

專門家들은 開發途上國의 外貨收入과 支出에 영향을 미치는 諸要因을 綜合적으로 分析하게 된다.<sup>註18)</sup>

사실상 韓國은 76년에 1人당所得 690달러와 輸出 80億달러를 기록하였고 4次計劃이 끝나는 81년에는 1人당 GNP가 1,520달러, 輸出이 經常價格으로 174億달러에 이르고 外換保有高는 59.4億달러에 이르게 됨으로써 이 時期를 前後해서 貿易 및 外換의 自由化와 나아가서는 先進國의 經濟協力機構인 OECD에 加盟될 것으로 보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미 開發途上國이 아니라 先進國의 그룹에 속하게 될 것으로 展望되는 것이다.

## 第 2 節 國民總生産의 分配

所得의 分配問題에 대해서는 第1章과 第2章에서도 言及하였으나 여기서는 總量概念에 따라 GNP가 國民들에게 어떻게 分配되고 있는가를 생각하겠다.

첫째로 韓國에 있어서는 資本主義의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國民所得은 勞動所得과 財産所得으로 구분되는 機能的 分配를 생각할 수 있으나 北韓에 있어서는 財産所得이 없으므로 勞動所得의 概念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모든 生産手段이 公的 所有이므로 GNP중에서 公共部門의 配分을 제외한 個人部門에 대한 配分이 勞動所得과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

註18) 國際金融市場과 開發途上國의 資本調達, 한국은행, 1976.6.

먼저 韓國의 機能別所得分配을 보면 1975년에 있어서 分配된 國民所得總額은 7兆3,481.5 億원인데 이중 勞動所得인 被傭者報酬가 2兆8,534.4 億원으로 38.8%이고 財産所得은 8,255.9 億원으로 11.2%이며 勞動所得과 財産所得을 分類할 수 없는 非法人企業所得이 3兆1,936.7 億원으로 43.5%나 되며, 그중에서도 農業所得이 1兆7,674.6 億원으로 24.0%나 된다. 農業所得은 말할 것 없으며 그밖의 非法人所得도 勞動所得과 財産所得을 全體의 比重인 38.8對 11.2로 구분한다고 하면 勞動所得은  $28,543.4 + 17,674.6 + (31,936.7 - 17,674.6) \times \frac{38.8}{38.8 + 11.2} = 57,277.6$  億원이 되며 이는 全體의 77.9%에 해당된다. 따라서 韓國은 分配國民所得의 77.9%가 勞動所得이고 15.6%가 財産所得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을 GNP에 대한 比率로 換算하면 國民所得의 對 GNP比率이 80.9%이므로 勞動所得은 對 GNP 63.0%, 財産所得은 12.6%가 된다.

北韓에 있어서는 1970년에 있어 GNP 75億377萬원에 대하여 分配國民所得은 66億7,262萬원으로써 88.9%이며, 이 중에서 去來稅가 29億3,784萬원으로 對 GNP 41.3% 企業利益金協同團體所得稅가 13億3,558萬원으로 對 GNP 17.8%로써 個人所得은 23億9,920萬원으로 對 GNP 32.0%에 불과한 것이다.

韓國의 分配國民所得은 租稅를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租稅를 공제한 可処分所得과 比較하면 可処分所得은 GNP의 74.5%이고 分配國民所得의 92.1%이므로 可処分 勞動所得은 GNP의 58.0%라고 생각할 수 있다.



<表 8 >

韓國의 1975 年の 分配國民所得

(單位：10 億圓)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國民所得	7,348.15	100.0	國民所得	7,348.15	100.0
被傭者報酬(A)	2,854.34	38.8	勞動所得	5,727.76	77.9
非法人 企業所得(B)	3,193.67	43.5	(A) + (C) +		
農業所得(C)	1,767.46	24.0	[(B) - (C)]		
財産所得(D)	825.59	11.2	$\times \frac{(A)}{(A) + (D)}$		
法人移轉支給	47.17	0.6	財産所得	1,144.84	15.6
法人貯蓄	183.50	2.5			
法人稅	154.06	2.1	同 一		
政府企業所得	105.78	1.4			

資料：韓國의 國民總生産，한국은행，1976.9.

이에 비하여 北韓의 경우 住民들의 個人所得의 32.0%에 불과하므로 北韓의 分配率은 韓國의 勞動所得比率보다도 월등히 낮으며, 그만큼 政府의 勞動力擄取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勞動者의 附加價值와 賃金率을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미 앞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北韓의 경우 金日成은 1962年 內閣秘密會議에서 「北韓 勞動者 1名의 年間生産額은

3千원인데 労働者에게 支給되는 賃金は 年間 480원 내지 500원이다」라고 하였다.

<表 9> 北韓의 1970年の 分配国民所得

(單位：백만北韓원)

	金 額	構 成 比	对 GNP 比率
国民所得	6,672.62	100.0	88.9
去 来 税	2,937.84	46.4	41.3
企業利益金協同团体所得税	1,335.58	20.0	17.8
個人所得 1次分配	2,399.20	33.6	32.0

資料：南北韓經濟力比較，中央情報部。

이것은 勞動力搾取率이 600 ~ 625%나 높은 比率이며 勞働所得分配率로는 16.0% 내지 16.7%의 낮은 比率이다. 같은 해인 1962年 韓國의 製造業部門의 勞働者의 1人當附加價值는 117千원이었으나 賃金은 5萬원으로 分配率이 43.5%이었던 것에 비하면 北韓의 勞動力搾取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韓國의 1975年の 勞働者 1人當 附加價值와 賃金 및 勞働所得分配率은 <表 10>과 같으며 여기서 業種別로 차이가 심한 것은 資本裝備率이 높아서 勞働生産性(附加價值)이 높은 業種의 分配率이 낮기 때문이다. 예컨대 電氣業의 경우 資本裝備率이 높기 때문에 1人當附加價值가 6,005원으로 他業種보다 월등히 높는데 비해 賃金

水準은 1,615 원으로 分配率은 26.9%로 가장 낮으나 賃金水準의 絶對額은 어떤 他業種보다도 가장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의 分配率이 低位인 것은 도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表 10> 韓國의 業種別 勞動所得分配率(1975年)

	1人当附加価値(A) (千원)	賃金水準(B) (千원)	勞動所得分配率( $\frac{B}{A}$ )
製 造 業	1,474	618	41.9
鎔 業	1,634	1,009	61.8
電 氣 業	6,005	1,615	26.9
建 設 業	1,388	900	64.8
都小売業	2,172	960	44.2
서 비 스 業	1,495	560	37.5

資料：企業經濟分析，한국은행，1976.

한편 階層別 所得分配에 대해서는 北韓에 있어서는 社会主义體制이기 때문에 理論上 階層別 所得格差가 問題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야 하겠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경우 所得階層의 격차는 論議의 資料가 없으므로 韓國의 所得階層別 分布만을 論議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이에 대한 論議는 생략한다. 다만 韓國의 所得階層別 分布는 이미 第2章에서도 部分的으로 言及한 바와 같이 그 10分

位階層別分布가 東南亞各國보다 均等하고 미국, 日本, 台灣등과 같으므로 政策上 큰 問題가 없다고 생각된다.

北韓에 있어서 所得階層別分布에 대한 資料가 없으므로 論議의 여지가 없다고 해도 現實的으로 職級別 勞賃의 格差는 오히려 韓國보다 크다. 1970년에 0정해진 北韓의 職種 및 職級別俸給額과 最高額에 대한 百分比를 보면 <表 11>과 같다.

<表 11> 北韓의 職級別俸給

中央公務員			特殊企業			3級企業	
部長(長官級)	330 원	100.0 %	支配人	310 원	93.9 %	130 원	39.4 %
副部長(次官級)	250	75.7	技師長	250	75.7	110	33.3
局長	190	57.5	部長	130	39.4	90	27.3
課長	100	30.3					
指導員	70	21.2					
	3級	4級	5級	6級	7級	8級	
勞動者	45	50	55	60	65	70	
(比率)	13.6	15.1	16.7	18.2	19.7	21.2	

資料：民主統一, 1976. 統一研修所.

北韓의 最高俸은 역시 中央公務員의 長이며 이를 기준으로 特殊企業의 長은 93.9%, 3級企業의 長은 39.4%로 격차가 많고 職級別로는 勞動者는 最低 13.6%에서 最高가 21.2%밖에 되지 않는다.

韓國에 있어서는 日級을 제외하고는 國營企業이나 銀行의 大學卒業者의 初任俸은 本俸이 52,000 원, 職資手當 32,000 원, 其他手當이 20,800 원으로 都合 104,800 원인데 이는 國營企業이나 銀行의 長의 36 萬원에 비하면 무려 41.1%나 된다. 물론 個人企業의 경우에는 企業體마다 크게 다르지만 職種과 職級別俸給水準의 격차는 北韓이나 韓國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따라서 分配問題에 있어서 共產主義社會가 制度上으로 優越하다는 것은 과장된 선전에 불과하다. 다만 財産所得이 없는 것이 共產主義社會의 特徵이나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의 財産所得과 그를 위한 貯蓄의 可能性은 장래의 生活을 위한 貯蓄을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의의가 있다. 케인즈(J.M.Keynes)가 말한 바와 같이 流動性選好의 한 動機로써 豫備的動機(Preparatory motive)는 資本主義社會에 사는 사람들의 經濟行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실제로 貯蓄者의 貯蓄目的中에 가장 중요한 것은 將來의 意外의 支出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貯蓄動機調査의 回答에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안도(A.Ando)와 모디리아니(F. Modigliani)는 라이프·사이클(Life-Cycle)이라는 가설에 입각한 貯蓄理論을 전개하였다.<sup>註19)</sup> 이 理論은 모든 消費者 個個人의 效用

---

註19) A.Ando and F.Modigliani, "The 'Life-Cycle' Hypothesis of Saving : Aggrigate Implications and Tests," AER, Mar. 1963, pp.55-84.

은 그들의 現在와 未來의 消費의 函數라고 가정했고, 年令別 所得水準의 變化와 消費와의 關係를 설명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들의 生活指標, 消費에 의한 效用 또는 滿足感은 現在의 消費뿐 아니라 未來의 消費에도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未來의 消費를 위하여 現在의 消費를 抑制하고 貯蓄하는 것이 貯蓄의 動機일 것이다. 라이프·사이클의 假定에서는 家口主의 年令階層이 높아짐에 따라 限界貯蓄性向이 커질 것을 理論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家口主의 一定年令이 지나면 年令이 높아짐에 따라 雇傭에서 생기는 所得, 즉 勞動所得의 比重은 감소되고, 그대신 그동안 蓄積해 놓은 資産으로 부터의 收入, 즉 財産所得의 比重이 커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年令이 높아짐에 따라 勞動所得에 비하여 財産所得의 比重이 커지려면 貯蓄이 계속 增加되어 蓄積된 資産이 많아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家口主의 年令別 都市勤勞者家計의 月可処分所得, 平均貯蓄率, 家口員數 및 就業者數는 <表 12>와 같다. 이것은 1973 年에 經濟企劃院이 조사한 資料<sup>註 20)</sup>인데 家口主年令에 따라 6階層으로 分類된 同表에서 家口當 月平均可処分所得은 第 5階層(40 ~ 49 歲)까지는 年令階層이 上位일 수록 增加하였으나 그 後에는 減少되었다. 이는 勤勞所得이 絶頂(Peak)에 이르는 一定年令까지는 增加되고 그 後에는 減少됨을 의미한다.

註 20) 都市家計年報, 經濟企劃院, 1973.

<表 12 > 韓口의 年令階層別 勤勞所得과 貯蓄

( 1973 年 )

年 令 階 層	月可処分 所 得 (%)	平 均 貯蓄率 (%)	家口員數 (人)	家 口 当 就業人數 (人)	可処分所得 에 대한教 育費比率(%)
第 1 階層 (24才以下)	29,430	9.7	4.3	1.5	4.7
第 2 階層 (25~29才)	36,220	13.9	4.0	1.3	4.7
第 3 階層 (30~34才)	40,630	13.0	4.6	1.3	5.7
第 4 階層 (35~39才)	45,440	12.2	5.5	1.4	6.1
第 5 階層 (40~49才)	50,340	8.1	6.5	1.5	7.3
第 6 階層 (50才以上)	44,950	8.9	5.7	1.5	9.8
平 均	43,166	11.2	5.3	1.4	6.3

資料 :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1973.

家口当 平均家口員數도 같은 類型을 따랐다. 이것은 켈리 (A.C. Kelly)와 윌리엄슨 (J.A. Williamson)이 보여준 인도네시아의 경우와 같았고<sup>21)</sup> 피셔 (J.A. Fisher)가 論議한 영국과 미국의 패턴 과도 같다.<sup>22)</sup>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平均家計所得은 第 5階層까

註 21) A.C. Kelly and J.A. Williamson, "Household Saving Behavior in the Developing Economics : The Indonesian cas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16, No. 3, 1968, pp. 385-403.

註 22) J.A. Fisher, "Income, Saving, and Saving Patterns of Consumer Units in Different Age Groups," Studies in Income and Wealth, Vol. 15, NBER, 1952, pp. 75-102.

지는 年令階層에 따라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平均貯蓄率은 第2 (25 ~ 29才) 및 第3階層 (30 ~ 34才)에서 가장 높으며 그 이후에는 年令이 증가됨에 따라 오히려 減少되고 있다. 이러한 傾向은 앞의 두 경우, 즉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다. 이와같은 우리나라의 특이한 貯蓄性向의 年令別分布는 두가지 이유에 기인된다. 첫째는 年令階層이 높을수록 教育費比重이 커지기 때문이며 둘째는 大家族制度에 따라 一部 老世代는 은퇴후의 生活를 子女에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老後를 위한 貨幣的貯蓄대신 子女教育에 投資하고 老後에는 子女에게 의지하는 것이다.

北韓의 경우 外國처럼 老後를 위한 貯蓄의 增大가 可能하지도 않고 우리처럼 老後에 子女에게 의지할 수도 없는 實情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北韓住民은 現在의 消費水準도 비참하지만 未來의 消費 또는 生活水準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 第 3 節 國民總生産의 支出

南北韓의 消費水準이나 生活水準에 대해서는 이미 前章에서 言及하였으나 여기서는 國民總生産에 대한 支出을 總量의 側面에서 分析해 보겠다. <表 13>은 北韓의 國民總生産을 우리의 概念으로 換算하여 그 支出構成을 把握한 것이다. 消費支出은 GNP의 67.3%로써 韓國의 74.9%보다 월등히 적다. 그만큼 北韓에서는 強



制貯蓄을 많이 당하고 있는 셈이다. 더우기 消費支出을 主体別로 볼때 個人消費는 38.1%에 不過하며 社会的消費가 29.2%를 占하고 있다. 이것은 韓國의 경우 民間消費가 65.0%, 政府消費는 不過 9.9%인 것과 对照的이다. 北韓經濟에 있어서는 그만큼 個人經濟活動의 比重이 작은 반면에 財政支出의 비중이 월등히 큰 까닭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國民總生産에 대한 投資支出의 比重은 北韓이 29.7%로써 韓國의 26.7%보다 別로 크지 않다. 消費支出에 있어서는 7.6% 포인트의 차이가 있었으나 投資支出은 3%포인트 밖에 차이가 없는 이유는 韓國에 있어서는 投資財源의 一部가 海外貯蓄에도 依存되고 있기 때문이다. 海外貯蓄은 그만큼 將來에 있어서는 國民負擔이 되겠으나 現在에 있어서는 國民負擔을 경감시키는 役割을 할 것이다. 한편 北韓은 投資支出에 있어서 財政投資가 26.0%로써 圧倒的이다. 이는 投資額에 대한 比率로써는 87.6%의 圧倒的인 比重인 것이다. 사실상 北韓에 있어서는 企業投資라 해도 個人企業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直接的인 財政投資에 의하여 모든 企業活動을 전개한다고 볼 수 있다.

北韓에 있어서는 貯蓄의 概念은 사용될 수 없고 모든 貯蓄은 投資의 概念으로 把握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만큼 個人生活에 있어서 剩餘란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아직도 貯蓄率이 投資資金의 需要에 따라 갈만큼, 充分하지는 못하나 여기서는 國

民所得의 決定에 對한 貯蓄投資의 理論을 살필 必要는 없으므로  
 家計의 剩餘라는 側面에서 家計貯蓄을 검토해 보면 1971年의  
 크로스·섹션資料에 의하면 全都市家計는 9.8%, 農村家計는 11.1  
 %의 平均貯蓄率을 보이고 있다. 註 23)

<表 13> 南北韓의 國民總生産의 支出

	北韓 (1970年)			韓國 (1975年)	
	金額 (百萬元)	構成比		金額 (10 億원)	構成比
GNP	7,504	100.0	GNP	4,129	100.0
消費支出	5,052	67.3	消費支出	3,093	74.9
個人	2,855	38.1	民間消費	2,684	65.0
社會的消費	2,196	29.2	政府消費	409	9.9
投資支出	2,230	29.7	投資支出	1,101	26.7
財政投資	1,953	26.0	固定資本形成	1,056	25.6
企業投資	277	3.7	在庫	455	11.0
在庫	348	4.6			
海外純移轉	-128	-1.7	海外純移轉	-13	-0.3

資料 : 北韓은 「南北韓經濟比較」, 韓國은 「韓國의 國民總生産」

우리 의 年令階層別 所得과 貯蓄에 關해서는 前節에서 高찰하였다.  
 결국 우리는 貯蓄이 可能하나 北韓은 個人貯蓄은 전혀 없고, 그대신

註 23) 金光錫, 韓國家計의 貯蓄行態, 韓國開發研究院.

政府의 財政投資를 주축으로 하는 投資만이 있을 뿐이므로 個人의 生活은 그날 그날 中央計劃機構가 결정한 基準에 따라 配分되는 糧穀과 所得에 의하여 當爲될 수 밖에 없다.

또한 總量的으로는 貯蓄과 投資에 의한 國民所得의 決定이 있을 수 없으며 오직 政府의 財政投資에 따라서 國民總生産量이 결정될 뿐이다. 그러므로 어떤 部分은 財貨의 不足으로 國民生活을 곤란케 하고 企業投資의 原料供給에도 차질을 빚게 되며 어떤 部分은 投資의 過剩으로 財貨와 浪費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최근 資本主義國家로 부터 設備를 導入하였으나 輸出할 財貨의 生産은 不足하기 때문에 격심한 國際収支의 不均衡으로 對外支給能力의 不足과 債務償還의 不履行이 발생된 것이다.

北韓의 主要한 投資內訳을 計劃期間別 産業別로 살펴보면 <表 14>와 같다. 1961년부터 69년까지의 7個年計劃期間中에는 總 87 億 6,499 萬원을 投資했는데 이중 16%인 14 億 240 萬원이 農業部門에 投資했으며, 그 中에서 水利化事業에 45%를 投資했다. 한편 工業部門에는 全體의 57%인 49 億 9,604 萬원을 投資했는데 그중 重工業이 80%, 輕工業이 20%를 차지하였다. 기타 부문에서는 全體의 27%인 23 億 6,655 萬원을 投資했는데 그 中에서 農村住宅이 20%를 차지하였다. 70年代에 와서는 6個年計劃期間中 工業部門 49%, 農業部門 18%, 其他部門 33%로 구성되어 있는데 극기할 만한 것은 軍事目的의 投資의 一部를 總래의 工業部門(軍需産業) 외에 其他部門으로 偽裝시키고 있는 點이다.

<表 14> 北韓의 - 計劃期間別 産業別 投資內訳

(單位: 백만원, %)

	總 額	工 業	農 業	其 他
当初 7 個年計劃 期間 (61~67)	5,335.41 (100.0)	2,959.37 (58.0) 重工業 75 % 輕工業 25 %	1,124.61 (12.0)	1,251.43 (30.0)
延長된 7 個年計劃 期間 (61~70)	8,764.99 (100.0)	4,996.04 (57.0) 重工業 80 % 輕工業 20 %	1,402.40 (16.0)	2,366.55 (27.0) 農村住宅 25 %
6 個年計劃期間 (71~76)	7 個年計劃 보다 많음 (100.0)	(49.0) 重工業 83 % 輕工業 17 %	(18.0)	(33.0)

資料: 南北韓 經濟力 比較, 中央情報部, p.175.

한편 工業部門中의 重工業의 比重은 83 %로 한층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表 13>에서 北韓의 海外純移轉이 128 百萬원의 赤字임  
을 볼 수 있다. 이것은 海外로 부터의 負債인 資本去來에 의한  
收入을 의미한다. 1970 年에 北韓은 輸入 380 百萬달러에 輸出  
330 百萬달러로써 50 百萬달러의 貿易收支赤字를 보이고 있으며 이

와같은 貿易赤字는 1968年以來 계속되었고 70年代에는 더욱 擴大되었다. 6個年計劃期間中 北韓은 資本主義國家들로 부터 資本財導入을 擴大한 결과 貿易収支가 한층 惡化되었고 統一院의 推計로는 1974年에 있어 輸入 11.5億달러에 輸出은 5.5億달러로써 6億달러의 貿易赤字를 기록하였으며 그간의 外債總額은 20.5億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이것은 年間 輸出總額의 4배에 가까운 규모이다. 그리하여 北韓의 外債의 累増과 債還不履行에 관한 問題는 앞에서 몇차례 지적되었으므로 또다시 言及할 필요가 없겠으나 최근의 東京發 外信의 報道를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sup>註 24)</sup> 「北韓은 심각한 財政難에 빠져 있으며 現在로써는 가까운 장래에 그로부터 헤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아무런 조짐도 없다. 北韓은 소련과 西歐 및 日本을 포함한 外國去來先에 20億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北韓의 經濟情勢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貿易相對國들은 더욱 완강하게 債務決濟를 요구하고 있다. 한 예로 北韓은 日本에 대해 260百萬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데 그중 6~7천만달러는 이미 支給期限이 지났다. 日·朝 貿易會의 12人使節團은 지난주 惡化一路의 情勢를 토의키 위해 平壤으로 떠났다. 通産省官吏들은 日本이 對北韓 플랜트輸出을 中止시켰다. 한편 西獨도 北韓이 代金決濟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註 24) 1976年 12月 20日 東京發 外信, 主要國內日刊紙 및 經濟紙報道

그들과의 貿易을 中斷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프랑스가 建設하던  
남사 分解工場은 완공되지 않은채 工事が 중단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外信에 의하면 北韓의 現實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北韓은 이와같은 經濟構造上的 심각한 곤란에 비추어 住民들의  
勞動力強化와 生活의 緊縮을 더욱 강요할 것으로 보인다. 北韓에  
있어서의 住民生活은 그 以上 더 抑壓할 수 없을만큼 最低生存水  
準 以下の 生活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自身도 한때 消費生活  
에 向上問題가 제기되었었다. 1973年 金日成의 新年辭에서는 消  
費財生産을 강조하고 消費生活의 向上을 중요시해야 되겠다는 것이  
確認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北韓의 勤勞者의 生活이 너무나 貧窮  
하기 때문이 이를 어느정도 해결시키지 않고는 勞動能率을 올릴  
수 없다는 經濟的 必要性에 기인되었고, 勞動力強化를 계속하기 위  
하여는 勤勞者의 生活問題를 그 以上 더 耐乏시킬 수 없기 때문  
에 취해진 조치이다. 그러나 現實에 있어서는 그와같은 지침과는  
반대로 消費財工業보다 生産財工業인 重工業에의 投資比率은 점점더  
커지고 있으며 「家庭으로 부터의 女性의 해방」이란 名分으로 女  
子들까지 生産工場과 集團農場에 예속시키는 결과로 변천되고 있는  
것이다.

## 맺 는 말

以上에서 南北韓의 國民福祉와 厚生에 관련된 基本的인 政策方向과 그 現實的인 分析으로써 微視的으로 購買力과 生計費水準의 比較檢討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總量的인 國民總生産의 産業別 構成, 分配國民所得 및 國民總生産의 支出를 통한 國民들의 生活水準의 基本的인 條件들을 檢討하였다.

이 研究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北韓의 統計資料의 부족인 바, 사실상 福祉 및 厚生이란 側面에 대해서는 韓國에서도 상세한 統計資料를 구비하지 못했을만큼 이 分野의 分析은 어려운 課題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資料의 制約에 불구하고 南北韓의 經濟開發과 社會開發, 國民所得의 成長과 分配에 관한 基本的인 開發方向 또는 政策方向을 比較 檢討하였다.

또한 勞動生産性과 賃金水準의 比較를 통하여 勞動者의 附加價值 形成과 그 分配率을 比較하였으며 賃金과 生計費를 比較함으로써 基本的인 生活水準의 격차를 검토하였다. 한편 都市와 農村의 所得水準과 生活水準도 아울러 고찰하였으며 이들 諸問題를 다룬 第 2章에는 利用 可能한 몇개의 資料集들을 利用하여 比較表도 作成하였다.

總量部門을 取扱한 第3章에는 보다 구체적인 資料들을 利用할 수 있었으며 南北韓의 經濟成長力과 1人當 GNP 및 1人當 所得

水準의 比較 勤勞所得의 GNP에 대한 比率을 통한 勞動力擄取의  
정도에 대한 檢討등이 可能했으며 韓國의 國民貯蓄의 樣相과 北韓  
의 財政投資를 比較함으로써 未來의 消費에 관한 問題를 검토하여  
보았다.



